Weekly
공감
2009 10.21
No.33(통권 134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가을의 쉼표
기획특집 방방곡곡 문화가 찾아간다
다문화가 경쟁력이다
도심 속 궁궐… 오메, 단풍 들것네!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행복4江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문화는 방방곡곡 촘촘히 희망 심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명한 이야기지만, 1866년 병인양요 때 우리나라를 처음 접한 프랑스 해군 장교 주베르는 우리 농촌에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책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감탄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품속에 '문화'를 항상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문화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4대강 살리기로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힘써 지리산 천왕봉에서 고성 향로봉까지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프로젝트'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부지런히 달려온 덕분에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 이러한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문화의 단비를 촉촉이, 그리고 촘촘히 내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전국 방방곡곡 촘촘히'를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은 물론 제도 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문화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 문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문화농사꾼을 발굴하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기획자, 사서, 학예사, 예술가, 체육강사, 예술강사들이 문화의 바람을 신나게 일으켜 문화를 활짝 꽃피우게 할 것이다. 동시에 문화를 통해 젊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창조의 '끼'를 마음껏 발산토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섬마을 선착장에서 도시의 골목길에까지 문화가 살아 숨쉬고, 농촌, 어촌, 산촌 모든 이가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화 향수에 차별이 없는 아름답고 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 문화의 씨앗을 촘촘히 뿌려 우리 몸에 익숙한 옷처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분야에 문화의 지붕을 덧씌우고자 한다.

비행기는 이륙하기 직전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하지만, 일단 제트기류를 타기 시작하면 연료를 적게 쓰면서도 빠르게 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문화로 만들어 가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라는 비행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저 멀리 고공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10.21_No.33(통권 134호)

16

기획특집

문화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향상시키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러한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표지 설명 붉게 물든 가로수 아래 고즈넉한 벤치는 가을빛에 흠뻑 젖어 있고 벤치에 앉아 책을 든 이는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다. '2009 손 안 애서(愛書) 사진 및 UCC 공모전' 작품 중 하나인 우수상 수상작 '가을의 정취(고영훈 작)'다.

10

42

발행일 2009.10.2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
"위기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가동

다음 지하철역은
정신건강 체크' 역입니다

●● 〈Weekly 공감〉 32호(10월 14일자) 기획특집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G20시대 연다'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질서에 앞장서는 선도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기회로 우리는 세계인에게 선진 일류국가로서 질서의 위용을 보여줌으로써 힘 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_ 이택열

"개최국은 의견 개진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조율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지구촌을 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최자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G20의 대표에서 더 나아가 세계 2백여 개국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_ 최정복

"G20 정상회의 개최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G7 또는 G8 국가들의 이기심이 최근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를 잘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세계평화를 위한 귀중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_ 강중훈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교복과 교재는 깨끗하게 쓰고 물려줘요. 교복 물려주기에 5명 중 1명씩만 참여해도 연간 5백20억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교과서를 20퍼센트만 물려줘도 2천2백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Weekly 공감〉 32호 '명동역·동대문운동장역 정신건강 진단 키오스크 설치' 기사를 보고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명동역을 이용하면서 보던 기계인데 기사를 보고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용하기가 꺼려졌는데 막상 해보니까 혼자 간단히 진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건강한 신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정신은 더 중요합니다.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길에 잠깐 시간을 내 정신건강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_ 박희양

"와, 이런 신기한 게 있었네요 더 많은 지하철역에 설치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_ hitaWha

〈Weekly 공감〉 32호 '대북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 대일외고 허해성 군' 기사와 관련해 올라온 댓글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는 등의 보도를 접하곤 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다. 허 군의 값진 시도에 격려를 보낸다." _ 김영훈

알립니다

UCC로 보여준다! 새로 발견한 지역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UCC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숨겨진 지역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제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각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숨어 있는 문화를 발굴, 소개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 수 11월 9일까지
방 법 문화포털(www.culture.go.kr) 및 엠군(www. mgoon.com) 홈페이지에서 접수
형 식 3분 이내 순수창작물 UCC 동영상으로 장르(광고, 애니메이션, 영화, 오락 등) 불문
심 사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시상 후 수상작을 대상으로 본선 심사
발 표 권역별 수상작 11월 17일, 본선 수상작 11월 30일
시 상 권역별 금상(1명, 상금 60만원) 은상(2명, 상금 30만원) 동상(3명, 20만원) 입선(4명, 문화상품권 10만원)
본선 대상(1명, 5백만원), 최우수상(1명, 2백만원)
특별상(2명, 1백만원) 우수상(3명, 50만원)
장려상(4명, 20만원) 입선(5명, 10만원)

공감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0월 2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1호(9월 3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미소금융 **4** 보관 **5** 자중 **8** 자영업 **9** 미실
세로 **1** 우미관 **2** 투융자 **4** 보금자리 **6** 중도실용 **7** 개업

〈Weekly 공감〉 31호(9월 30일자) '공감 퍼즐' 당첨자
김진영(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박정희(경북 군위군 의흥면)
변석호(강원 춘천시 온의동)
채규정(전북 군산시 개정동)
황지혜(울산 중구 성안동)

가 로
1.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야외에 나갔다 오는 일. 학교에서 자연 관찰이나 역사유적 따위의 견학을 겸해 야외로 갔다 오는 일. 가을 OO.
3.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있는 나라. 수도는 하노이.
5. 유네스코가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문화유산. 우리나라는 석굴암 · 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유적(2000),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 조선왕릉(2009) 등이 이것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7. 불경을 집대성한 경전. 해인사 팔만OOO.
9. 브레이크 댄스 등을 전문적으로 추는 남자를 일컫는 말.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 잡았으며, 스포츠로도 각광 받고 있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으며, 새로운 한류상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B는 break를 가리키는 말.

세 로
2.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측하는 계기.
4. 경기도 광주 남한산에 있는 조선시대의 성. 사적 제57호. 북한산성과 더불어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 중의 하나.
5. 새로운 수출 문화상품으로 떠오르는 한글을 창제하신 분.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이분의 동상이 세워졌죠.
6. 서로의 갈등을 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어울림.
8.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우리 회사는 OO를 절감해 불경기에 대처하고 있다."

독자 ♥ 공감

〈Weekly 공감〉은 독자와의 소통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독자 공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소, 전화번호와 간단한 자기 소개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공감〉 코너 참여를 원하는 열성 독자들의 참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송기평(38) 씨를 만났다. 개인사업을 하는 송 씨는 올해 초부터 〈Weekly 공감〉을 정기 구독해오고 있다고 했다. 송 씨는 "정부 정책을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풀어놓은 〈Weekly 공감〉을 보면서 매주 정부와 소통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 정기 구독자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관공서에서 일을 보다가 우연히 〈Weekly 공감〉을 접했는데 제가 모르는 알찬 정보가 담겨 있어 정기 구독을 신청했어요. 구독 신청 방법도 간단하더군요. 〈Weekly 공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필수 정보만 입력하고 구독을 신청하면 집에서 매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Weekly 공감〉에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 〈Weekly 공감〉을 보면서 인상적인 점은.

〈Weekly 공감〉을 읽다 보면 정부와 소통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정부 잡지는 딱딱하고 촌스럽다는 고정관념을 깰 만큼 세련된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 서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들이 많아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 〈Weekly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도 좋지만 훈훈한 미담 기사도 많이 실어주세요. 고통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의지의 한국인' 이나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의 이야기도 꾸준히 실렸으면 합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기획특집에서 다룬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

최기식 전북 남원시

1.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 인터넷 연설 1년' 을 읽었다. 라디오 연설을 우연히 몇 번 들었다. 하지만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놓친 연설이 많아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줘서 좋았다. 라디오 연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2.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리더로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민 모두가 거시적인 마음을 갖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격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3. "좋은 교육 없이 좋은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좋은 인재 없이 좋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이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좋은 교육의 성공 사례, 현장 탐방 등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으면 한다.

박의양 서울시 성동구

1.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1년에서 대통령님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정치권, 기업과 금융기관 등 국민 모두가 서로 믿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한 말에 공감했다.
2. 대한민국이 국제 경제질서의 새로운 틀과 판을 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3.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매주 한 곳을 선정해 소개함으로써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

강유리 광주시 남구

1. 구술전자민원 서비스를 관심 있게 읽었다. 이렇게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가 도입되다니 참 좋다.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전 국민이 쉽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3. 현재 전국 교육대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맹휴업, 투쟁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다. 투쟁의 목적, 학교나 학생들 그리고 정부의 입장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21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 마당' 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감동, 마음을 적시다(이지애 · 최우수상)

학창시절(오용진 · 장려상)

정우는 그림책을 좋아해요(윤동훈 · 장려상)

폭풍우 치는 밤에(이정희 · 장려상)

愛書

행복한 책 읽기

2009 손 안 애서(愛書) 사진 및 UCC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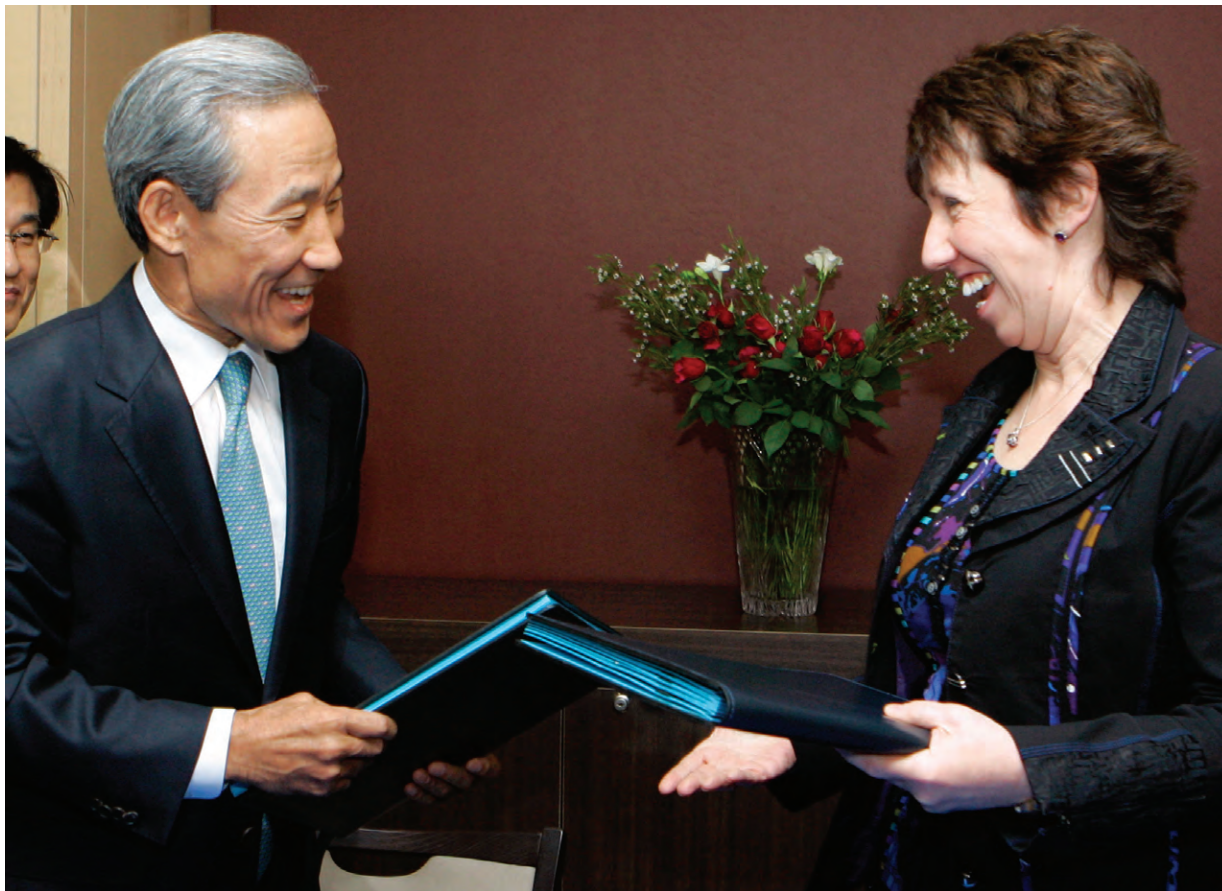
비오는 날의 독서 삼매경(고명환 · 장려상)

어떤 이는 세상과의 소통과 교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물 속마냥 속 깊은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 무한한 지식의 창고 엿보기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양식을, 혹은 위안과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천 명의 사람에게 천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는 이것, 독서입니다.

우수에 찬 공기가 대기를 가득 채우고, 풍성한 결실이 대지를 뒤덮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2009 손 안 애서(愛書) 사진 및 UCC 공모전' 수상작들은 제각기 다른 얼굴로 독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소로, 웃음으로, 진지함과 심각함 그리고 마른 마음 적시듯 흘러내리는 한 줄기 눈물까지….

이 가을, 책을 찾아 펴들고 나의 독서의 이유를 찾아볼까요. G

글 · 박경아 기자

AP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EU FTA 협정문 가서명

세계 GDP 30.2%… 유럽시장이 열린다

우리나라와 EU가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내년 7월쯤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계 최대 경제시장인 유럽연합(EU)이 우리에게 한층 가까워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한국과 EU는 2007년 5월 첫 FTA 협상을 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을 통해 쟁점을 조율했다. 지난 7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타결을 선언했다.

앞으로 협정문 번역작업(한국어 및 EU 측 23개 공식 언어)을 거쳐 내년 1, 2월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와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 공존

EU와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통합을 이루게 돼 명실상부한 FTA의 축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인지도가 높아지고 국제적인 협상력이 제고되는 등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EU와의 FTA 체결은 그 자체로도 많은 의미를 갖는다. EU는 국내총생산(GDP)이 18조4천억 달러로 세계 GDP의 30.2

퍼센트를 차지하는 곳이다. 미국 14조3천억 달러, 일본 4조9천억 달러보다 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규모를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며, 기업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성장동력이 다소 위축돼 있던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대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까지 다양한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최근 EU에 가입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한·EU FTA가 이뤄지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난다. 따라서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증대돼 일자리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EU의 선진경제 시스템이 들어오게 돼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車·전자제품 등 높은 관세 없어져 경제적 효과 클 것

우리나라는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된다. 따라서 EU와 아시아 국가들 간 상품 및 자본 교류를 위한 관문 구실을 함으로써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인 미국을 자극해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소비자 처지에서도 EU와 FTA가 이뤄지면 관세 철폐(또는 인하)에 따라 EU산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상품이 수입돼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금융·법률·회계 시장 등의 개방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별로 한·EU FTA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부문 등의 EU 측 시장 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업은 지적재산권, 통신, 금융, 환경서비스업 분야 등에서의 개방을 통해 좀 더 자유로운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의 경우 EU의 농업 분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달리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 분야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협상과정에서 예외조항을 최대한 확보했다. 삼겹살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 기간을 10년으로 확보했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가 하면,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조항을 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수산업은 골뱅이, 볼락, 멸치 등 국내 일반 해면어업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지만 대신 황다랑어, 오징어 등의 수출은 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7년 11월 FTA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이행과제 총 2백24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중이다. 농수산 분야는 10년간(2008~2017년) 21조1천억을 투자해 직접적 피해보전(1조3천억) 및 경쟁력 강화(19조8천억),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이는 11개 연구기관이 추정한 농수산업 분야의 발효 후 15년간 예상 생산액 감소분의 2배 수준이다.

연합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한·EU FTA 가서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직접적 피해는 제도적 틀에 따라 지원하고, 기존의 제도적 틀에서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지원은 이미 마련된 제도적 틀에 따라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제조, 서비스업)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제도적 틀에서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해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개별 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을 위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계, 지역단체,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교육, 대국민 정보제공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강희락 경찰청장

"서민 대상 범죄 뿌리 뽑겠다"

범죄에는 엄격하지만 국민에게는 따뜻한 경찰. 모두가 바라는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청은 국민들이 범죄나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인 '희망울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이 서민의 희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단한 조직 쇄신과 강도 높은 기강 확립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1945년 광복과 함께 태어나 64년이 됐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4만 경찰을 대표하는 강희락(56) 경찰청장은 "경찰의 이미지와 국민의 신뢰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는 기대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안정된 치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로 소득 감소, 일자리 부족, 범죄 증가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국민들이 범죄나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인 '희망울타리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이 서민들의 '희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서민보호 치안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치안활동, 서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2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 영세상인 갈취, 불법 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쪽방, 달동네,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을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순찰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서민생활과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택배업자, 소형화물차 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분납과 납부 유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경찰서가 관내 복지시설과 1 대 1 관계를 맺고 매월 1회 이상 청소, 식사 보조, 목욕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111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서, 산간오지 등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경찰서'를 운영해 각종 민원 상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서울 동묘공원 앞의 음식 노점상들을 폭행해 1억원

상당에 거래되는 노점을 빼앗은 폭력배를 검거했고, 중국 상하이 경찰주재관을 통한 공조수사로 중국 공안국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6억3천만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서민 대상 범죄를 집중단속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전년 대비 6.9퍼센트 높아졌습니다.

또 영세민 5천1백여 명에 대해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 울진 국도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장애인이 차량 공매처분을 1년간 유예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전화를 해왔고, 경기 평택에 사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과태료 유예처분이 큰 도움이 됐다며 경찰서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동 안전이나 성폭력피해 보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찰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집 및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놀이터, 공원,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범죄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분석해 대인방어 방식의 적극적인 방범활동을 펼침으로써 재범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각종 협력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아동안전보호협의체'를 각 경찰서별로 발족해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없어 치안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003년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 체제로 전환하면서 남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변경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모든 치안센터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센터를 지속적으로 파출소로 환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 여건상 모든 치안센터를 일시에 파출소로 환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3년 지구대 개편 이후 5백50개의 파출소를 늘렸고 올해에도 1백57개소를 늘렸습니다. 향후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파출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치안센터의 활용도를 전면 재평가해 운영이 필요한 지역은 상주근무자를 배치해 거점장소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치안센터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교통 불편이나 생계 등의 이유로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취약·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 평창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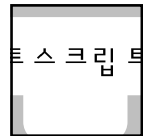
앞으로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관광지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민생치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대상 강절도 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한편 가을철에 기승을 부리는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보강, 순찰 강화, 민간협력 방범체계 구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경찰서가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해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권력·토착형 비리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1백만 명시대를 맞아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범죄 유형별 분석과 전망을 통해 시의성 있는 치안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식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를 맞아 치안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이 더욱 분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조직 쇄신과 강도 높은 기강 확립 대책을 통해 경찰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치안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의 모습을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신종플루 집단 발생 감소세

독감백신 접종, 줄 서서 기다리지 마세요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단체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의 적절한 사용을 권장하고 고령자의 계절독감 백신 접종에 주의를 당부했다.

10월 들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 신종플루) 환자 집단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10월 13일 발표한 신종플루 주간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두 명 이상 신종플루 감염자가 나온 집단은 1백39곳에 그쳤다. 이로써 △9월 21~27일 2백88곳으로 정점을 이룬 뒤 △9월 28일~10월 4일 1백49건에 이어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어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속한 영남권 거주 53세 남성이 10월 15일 사망, 신종플루 사망자는 10월 16일 현재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생후 2개월 영아(10월 6일 사망) 사례와 관련,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의 경우 신종플루와 계절독감의 고위험군이므로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에서 발열과 기침 등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어린이 가운데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는 신종플루와 계절독감 고위험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후 1세 미만 영아 타미플루 투약 용량

생후 개월수	용량(5일간 복용)
~2개월	12mg 1일 2회
3~5개월	20mg 1일 2회
6~11개월	25mg 1일 2회

영아에게도 타미플루 투약 가능… 리렌자는 7세 이상만 처방

생후 1년 미만 영아도 신종플루가 의심될 경우 타미플루 투약이 가능하다. 현행 지침이 안내하는 대로 캡슐을 열고 생후 개월 수에 따라서 해당 분량만큼 시럽에 섞어서 복용하면 된다. 다만 또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인 리렌자는 7세 이상에게만 처방이 가능하고 영아 사용은 금지돼 있다.

한편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지는 사례가 10월 들어서만 5건이 발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절독감 보건소 무료접종 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반드시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받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 정해진 접종 시기를 통보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일선 보건소에 지시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보건소에 나가 대기하거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종을 받지 말고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받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3백88만명분의 계절독감 백신을 확보해 전국 2백53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사망자는 역대 최다(2005년 6건)에 육박하지만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최근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낮은 기온에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고령자의 백신 접종 시기가 추위가 닥친 시기와 겹치면서 사망 보고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올해 계절독감 백신 접종자 수가 3백30만명으로 2005년(1백70만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고, 약물에 의한 쇼크사의 경우 접종 후 30분 내에 아낙필락시스(급성이상반응)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백신과 무관하다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강조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계절독감 백신 관련 주의 사항

- 계절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신종플루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 계절독감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65세 미만 건강한 성인은 후순위다.
-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으려면 미리 통보해주는 접종 일정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한다.
-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기 위해 건강에 무리가 올 정도로 아침 일찍부터 대기할 필요가 없다.
- 기저질환이 있거나 급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백신 접종을 자제하고 접종 일정을 다시 정한다.

'2009 명량대첩축제'를 맞아 10월 10일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을 잇는 울돌목 바다에서 스턴트맨과 특수효과를 동원하여 영화 같은 명량대첩이 재현됐다. 동아DB

13 : 133로 싸워 이긴 영광의 전투

명량대첩

동아DB

4백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 수군이 전선(戰船) 13척으로 왜선(倭船) 1백33척을 수장시킨 명량대첩이 10월 10일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 바다에서 재현됐다. 이 행사는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공동으로 마련한 명량대첩축제의 백미로 꼽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재현한 명량대첩은 한 편의 영화처럼 연출됐다. 스턴트맨과 영화 특수효과팀이 참여해 화약과 폭죽을 터뜨리고, 수군으로 분장한 3백여 명이 직접 물로 뛰어들어 사실감을 더했다. 극단 '토지'의 최솔 감독이 총연출한 해전 재현은 울돌목 전체에 영상음향 시설과 대형 스크린을 설치, 해전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축제 현장으로 모여든 3만여 관람객은 우리 수군이 기습공격과 울돌목의 급한 물살을 이용해 왜선을 대파한 뒤 손을 흔들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축제에는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한·중·일 장군들의 후손도 참여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을 기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굿 다운로더가 되어 주세요"

I'm a Good Downloader

굿 다운로더?

1창작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창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치르고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

2올바른 다운로드로 당당하고 매너있게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

|**주최**| 영화진흥위원회,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 |**주관**| 굿 다운로더 캠페인 본부, 한국영상산업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서울영화상영관협회, 한국영화기자협회,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CJ CGV㈜,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온미디어, CJ미디어㈜, nhn㈜,TBWA KOREA(주)

굿 다운로더 캠페인 본부 위원장| 안성기, 박중훈

www.gooddownloader.com

大韓民國

세계는 문화경제 시대

기획특집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문화는 국민에게는 창조의 에너지를, 기업에는 신성장동력을, 국가에는 국가브랜드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에게는 세계에 내놓을 유·무형의 경쟁력 있는 문화자산들이 많다. 이를 계승 발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개척해 문화경쟁시대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향상시키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러한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한류스타들. 왼쪽부터 한혜진, 한예슬, 채민서, 이병헌.

세계는 이미 컬처노믹스

창조의 전략을 세우자

문화는 향유하는 개인에게 창조적 에너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에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정부는 문화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런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지역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린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재충전을 통해 새로운 노동의욕을 고취시켜주는 엔돌핀 역할을 한다. 창조의 에너지인 셈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격과 성능이 과거 제품 구입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이미지(디자인)와 제품에 투영된 문화(스토리)가 기준이 되고 있다. 단적으로 애플사의 MP3는 국내 기업의 제품과 비교해 기능과 성능 면에서 별 차이가 없고 가격이 50퍼센트나 더 비쌌음에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뛰어난 디자인과 스토리의 힘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화의 힘을 흔히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라고 말한다. 문화를 뜻하는 컬처(Culture)와 경제 상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뜻한다.

일본의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는 이미 1990년에 '창조의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력의 척도가 군사에서 정치, 경제에 이어 문화로 바뀌는 '창조의 시대'로 세계가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제 잡지 〈비즈니스위크〉도 2005년 8월 경쟁 패러다임이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창조'를 모태로 한 산업이 바로 문화산업이다. 우리 정부가 디자인산업, 콘텐츠산업 등 문화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이유다.

문화는 기업뿐 아니라 지역·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부산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든 20만명의 영화팬들로 가득 찼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역시 1천억원이 넘는 경제효과 이외에도 도시공간 창출, 도시브랜드 제고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광주시에 안겨주었다.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인 춘천시는 2000년에만 해도 외

국인 관광객이 연간 1천3백명 남짓했다. 하지만 '겨울연가'가 한류(韓流) 드라마로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 지난해엔 34만명을 넘어섰다. 내국인 관광객도 2000년 2백만명대이던 것이 2006년엔 4백5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패션 · 영상 · 음식까지…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뉴질랜드는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2만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와 1백46퍼센트에 이르는 영상산업의 성장을 이뤘다. 관광객도 매년 5.6퍼센트씩 늘었다. 미국 뉴욕은 문화예술로만 연간 4천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고, 영국 런던은 화력발전소를 '테이트모던'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4백62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처럼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경제효과 이외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다준다. 무엇보다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무거운 하드웨어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이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 취임사에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영역을 넘어 패션, 영상, 디자인, 음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1만8천 개)을 보장할 뿐 아니라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브랜드위원회 조기 발족과 조선왕릉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문화예산 '3조'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올해(2조8천4백91억원)보다 6.8퍼센트 늘어난 3조4백23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내년 정부 총 예산안 2백91조8천억원의 1.04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정부 예산 대비 최대 점유율이다. 증가율 역시 전체 정부 예산안 증가율 2.5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조원 넘게 편성된 데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 속 문화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과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및 국제 체육행사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증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게 해 새로운 창조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한글 가치의 확산과 세계화(81억원), 국립현대무용단 창단(18억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50억원),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24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컴퓨터 게임으로 대전을 펼치는 e스포츠 게임 전용 경기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안에 8백 석 안팎의 규모로 2011년 만들어진다. 국립현대무용단도 만들어져 발레나 한국무용과 달리 국립단체가 없던 현대무용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주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에 연면적 5만1천8백 제곱미터, 지상 13층 규모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주변 자전거길의 거점에 서울 자전거 유스호스텔을 2014년까지 8곳에 만들기 위해 1차로 2012년 조성할 4곳에 대한 설계작업을 내년에 착수한다. 비무장지대(DMZ), 습지 등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개발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3백50억원), 옛 서울역사 관광자원화(80억원) 등 문화시설 건립 및 재활용 사업(2천7백33억원)이 반영됐고, 문화 바우처(50억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사업(총 4백30억원)도 실시된다.

우리 마을 예술학교… 이웃 동네 할머니 공연단…

가까운 곳에 문화를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해결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것은 문화예술이다.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와 지역 문화시설 운영을 활성화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전남 여수시 외곽에 있는 여수북초등학교는 지난해 7월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된 덕분에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전교생 수가 36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술꽃 씨앗학교로 널리 알려지면서 신입생과 전학생이 크게 늘어 현재는 68명에 이른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소외지역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학교다.

이 학교 최원배 교장은 "인근에 학원이 한 군데도 없다. 그동안 문화예술 방면에서 소외받았던 아이들에게 예술꽃 씨앗학교는 숨겨진 재능이나 끼를 발휘할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신나게 즐긴다. 사교육으로 받기에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학년 정가영 어린이도 "다른 데서 배우면 학생 수가 많아 개인지도를 받기 힘든데 악기별로 선생님이 있어서 좋다"며 흡족해했다.

#2 62~78세 어르신들로 구성된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원의 실버그림자인형극단 '은빛여울'은 지난해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문화원과 함께 진행하는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인 은빛여울은 그림자 인형극에 대한 이해와 실제 무대경험, 심화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극단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은빛여울의 최고령 단원인 고금순(78) 씨는 "할머니들이 모여 뭘 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우리는 40, 50대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평구뿐 아니라 인천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요양원, 양로원을 다니며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공연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강사 강미자 씨도 한 수 거들었다.

"다들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이 대단하세요. 3년 정도 하다 보니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집어주셔서 갈수록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정경택 기자

10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의 '은빛, 박물관 물들이다'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이 한지공예를 배우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심과 농어촌 간의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국 방방곡곡을 문화의 향기로 채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을 누릴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김영일 사무관은 "무엇보다 학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확대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향유 공간이 없는 소외지역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소개한 예술꽃 씨앗학교를 비롯해 문화예술 선도학교, 명예교사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의 문화소외 지역에서 10개 학교를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해 4년간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자재를 보급해 아이들이 다양한 예능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와 일선 학교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 선도학교는 2007년 30개교에서 올해 2백 개교로 크게 늘었다. 또한 음악, 연극, 무용, 만화 등 8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정명훈 씨 등 17명의 명예교사가 직접 공연 해설이나 현장 체험을 이끄는 명예교사제는 지난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전국 2백44개교(기관)에서 1만3천여 명의 초중고생을 참여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1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2 지난 5월 25일 개관한 국립디지털도서관. 3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된 여수북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장구를 배우고 있다. 4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BMC도시개발공사아파트 주민들과 '거리의 미술 동호회' 회원들이 아파트 축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주최하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도 올해 여름방학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프로그램 및 강사 인적자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설 인프라를 결합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 1천2백53명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부처 협력 모델로 정착한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전국 3백 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예술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소외지역 방방곡곡 문화순회' 사업은 국립 예술단체가 전남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50개 문예회관을 순회하며 연중 공연을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진행하는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은 노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현재 전국 2백25개 문화원에서 4천7백여 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문화 양극화 해소 위한 노력 가시화… 전국이 문화의 향기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을 영화나 연극 제작 단체와 연결해주고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의 한 축인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당선된 21개 팀, 1백62명의 작가를 동원해 전국 곳곳의 마을회관과 산책로 등 우리 주변의 생활공간을 생동감 넘치는 미술공간으로 가꾸고 있다.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한 축인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당선된 21개 팀, 1백62명의 작가를 동원해 우리 주변의 생활공간을 생동감 넘치는 미술공간으로 가꾸고 있다.

올해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이 활발히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54개관), 박물관 및 미술관(26개관), 문예회관(5개관) 등 85개관 확충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농어촌 폐교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35곳 조성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리모델링 개관(올림픽홀 2천3백 석, 문화콘텐츠센터 3백60석) 등을 올해의 목표로 잡았다.

지난 5월 25일 개관한 세계 최초의 국립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Dibrary)'는 온라인 서비스 공간인 '디브러리 포털'과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인 '정보광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쌍방향 서비스는 물론 1억1천 건에 달하는 국내외 디지털 정보자원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루 평균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수는 1천10명, 디브러리 포털 이용자 수는 8백22명, 콘텐츠 이용 건수는 50만1천7백여 건에 이른다.

작은도서관은 목표보다 많은 61개소가 이미 조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팀 신명숙 사무관은 "올해 예산은 예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재원이 기금에서 국고로 안정화된 덕분에 초과 달성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기무사 터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조성하기 위한 건립 계획안이 마련돼 7월 말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또 지난 4월엔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립대한민국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전시 면적 6천 제곱미터 규모의 국립대한민국관은 2014년 준공할 예정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디브러리 Tel 02-535-4142 www.dibrary.ne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북 군산시 한마음지역자활센터 한마음공부방에 배달된 동화책을 들고 기뻐하는 어린이들.
외딴섬, 시골 마을 등에 문학작품을 배달하는 '문학 나눔'은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중 하나다.

특명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문화격차를 해소하라

올해 상반기 중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3명 중 1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소외되기 쉬운 지역과 저소득·서민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 나눔 서비스다.

#1 "시골 학교까지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면초등학교 2학년 소정이에요. 도시에서 시골 마을까지 오셔서 무대를 직접 꾸며주시고, 음악회를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신 성악가 모임 '얌모얌모' 아저씨들, 비누방울 아저씨 오쿠다 마사시와 마임을 보여주신 고재경 아저씨의 마술 같은 솜씨 덕분에 엄마와 한바탕 신나게 웃었답니다. 할아버지 세 분이 보여주신 철부지 밴드 공연도 재밌었고요. 시골까지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시니 자신감이 솟았습니다.(2009년 5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송면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가족 콘서트, 폐교·작은 학교 투어'에 참석한 윤소정 어린이. 송면초등학교는 전교생 55명의 작은 학교다.)

#2 "가족과 난생 처음 음악회에 다녀왔어요"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 바우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꽃향기 흩날리는 봄날, 난생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성악을 감상하기 위해 천안시청 봉서홀을 찾았다.

성악가들이 외국 곡과 가곡을 부른다고 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귀에 익은 외국 곡들과 친근한 우리 가곡을 듣고 공연이 끝날 때쯤 우리 가족 모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문화 바우처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나누었으면 좋겠다.(2009년 4월 문화 바우처로 신춘음악회 '봄을 부르는 소리'를 감상한 박재홍 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들이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소외지역과 계층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2009년 한 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억원 늘어난 2백18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8월 말까지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전국의 문화 사각지대를 찾아 1천2백36개 프로그램을 공연했으며, 13만6천7백69명이 문화 바우처(저소득층 1인당 연 5만원까지 관람료 지원)를 활용해 공연을 관람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이하 희망 프로젝트)'의 문화 나눔 사업 중 일부다. 문화 나눔 사업은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과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크게 두 가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 향유로부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촘촘한 문화 그물망을 형성하며 △저소득층, 서민, 장애인, 농어촌 지역민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문화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다. 여기에 문화 일자리 사업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까지 포함하여 희망 프로젝트 아래 1백57개 사업이 추진됐으며, 그 결과 2009년 상반기에만 1천6백여 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민 3명 중 1명꼴인 셈이다.

희망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 5월 국무총리실이 전국 20세 이상 국민 2천1백명과 전문가 1천5백60명을 대상으로 희망 프로젝트의 체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6퍼센트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40개 부·청의 정책을 통틀어 만족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처럼 높은 지지를 받은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 3년간 문화 나눔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문화 사각지대였던 지역과 계층까지 혜택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희망 프로젝트를 시행 주체와 대상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단체들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순회공연' △중앙박물관 등 국립 문화기관 6곳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버스' △우수 문학도서를 선정해 작은 도서관, 복지시설에 보급하는 '문학나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공연·전시 무료 관람과 체육시설 이용을 각각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 및 '스포츠 바우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이다.

동아DB

9월에 열린 춘천 전통나눔 음악회(위).

문화 바우처는 복권 기금을 활용, 저소득층에게 연간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다(왼쪽).

소외지역 순회공연
연극 '우동 한 그릇' 소외지 돌며 관객과 소통

문화예술단체가 전국의 소외지역을 찾아 펼치는 순회공연은 그동안 문화의 손길이 잘 닿지 않던 곳에 사는 지역민들의 호응이 높다. 2009년 공연 장소는 전국의 농어촌과 산골마을 읍면동, 외딴섬, 농공산업단지의 근로자 임대주택 지역, 재활원과 보육원 및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관, 교정시설 등 1천2백50곳이다. 공연 종류도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하다.

순회공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이 극단 김동수 컴퍼니의 연극 '우동 한 그릇'. 서울 대학로에서 6년 동안 15만 명 이상의 관객몰이에 성공한 이 연극은 1년째 외진 곳을 돌며 지방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가평 꽃동네를 찾아 무대에 선 어머니 역 배우 임은혜 씨는 "이런 외딴 곳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게 새롭다. 관객에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7월에 춘천소년원에서 가수 강원래 씨를 비롯, 전원 신체 장애인들로 구성된 '꿍따리 유랑단' 공연을 관람한 수감 청소년 조모 군(헤어디자인반)은 "8년간 휠체어를 탄 강원래 씨가 이렇게 공연을 다니는 걸 보니 감동적이다. 집안 사정을 탓했던 나 자신이 무척 부끄럽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문화버스
복제유물 전시부터 도서 전달, 각종 공연까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문화버스'는 국가가 운영하는 전시장, 영화관, 공연장이 먼 지역까지 찾아가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프로그램이다. 문화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등 6개 국립 문화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복제유물 전시, 도서 전달 및 책 읽어주기, 한국화·회화·조각 등 전시, 국악 공연, 영화 상영 등으로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다.

여러 기관이 함께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지난 4월 인천시 강화군 길상초등학교에서 각종 전시와 공연을 보여주는 자리에 학생과 주민 6백5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문화버스'는 올 상반기에만 8백31차례 운영됐으며, 하반기에는 다소 늘어난 8백57차례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문학 나눔
2천여 곳에 우수 문학작품 6만1000권 발송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문학 나눔'은 소외지역 2천여 곳에 우수 문학작품을 발송하고 있다. 대상은 교정시설, 복지시설,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영 등 책을 구입하기 힘든 곳으로, 상반기까지 2천92개소에 문학작품 6만1천여 권이 배달됐다. 전북 군산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포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숙 씨는 92종의 책이 모임 앞으로 배달됐다며,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독서록을 쓰고 독서퀴즈대회에서 실력을 겨루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 씨는 "시골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해서 미래에 빌 게이츠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대전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햇살 가득한 집'에서 일하는 '큰이모'라는 누리꾼(네티즌)은 문학나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동학대로 심신이 불안정한 아이들은 게임중독과 식탐이 심했다"면서 "최형미의 〈스티커 전쟁〉, 한상순의 〈뻥튀기는 속상해〉 등 지원받은 책을 읽은 아이들이 책 속에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세계가 있다고 말해서 기뻤다"고 했다.

문화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저소득층 1인당 연간 5만원 관람료 지원

문화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람들에게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에서 공연, 전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문화 바우처를 이용해 전시를 관람한 관객은 모두 13만6천7백69명. 문화 바우처를 이용해 관람한 공연 수도 1천5백여 개로 선택의 폭이 넓다.

한편 스포츠 바우처를 통해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유소년과 청소년 6천6백4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는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6만원까지 체육시설 이용권을 주거나 연 최대 6만6천원까지 체육용품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 수산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로 거듭났다. 상인들이 '놀래미 극단'을 구성해 시장 내 '꽁치극장'에서 배우로 나서고, 외벽에는 동네 주민 최수성 씨가 예전 극장 간판을 그리던 실력을 살려 생동감 넘치는 바다 풍경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로 문화 활동 지원

올해 총 39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선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 쉽게 갈 수 있도록 경기도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등 11개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영화관 13곳에서 한국영화에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을 넣어 상영하는가 하면 점자도서 35종, 녹음도서 47종, 수화도서 4종 등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점자 학습 사이트 '점자 세상'을 열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광주 무등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음성 낭독 프로그램, 점자 출력 서비스 등을 제

공하는 '장애인 정보 누리터'를 개설했다.

한편 10월 16일 서울시청 열린광장에서 개최된 '2009 세계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개막식에서는 국내와 해외 20여 개국 장애인 문화예술인 3천여 명이 참석해 일반인과 소통의 장을 열기도 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하나인 세계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는 음악제, 연극제, 학술제, 영화제 등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서울과 제주에서 23일까지 계속된다.

문전성시 프로젝트
예산·전문가 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활력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즉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는 문화사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시장에서는 백화점에는 없는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원 못골시장의 경우 10억원을 투자하고 10명의 컨설턴트를 보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전성시 프로젝트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이라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가는 날이 장날〉 등 가이드북 제작, 시범시장 선정, 평가와 자문 등을 수행한다. 또한 해당 재래시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지역 상공회의소, 민간 문화단체 등 관련 기관들의 지원도 이끌어냈다.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수원 못골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운영하는 라디오방송 '못골 온에어', 여성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만든 '못골시장 줌마 불평 합창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들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보이자 신문과 방송 등이 상인들이 작사한 '시장송'과 함께 못골시장의 '줌마 불평 합창단', 주문진시장의 '꽁치극장', '놀래미 극단'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희망 프로젝트의 취지는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2008년 말 계획 당시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문화 여가비를 대폭 줄인 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 취지였다. 앞으로도 이 취지는 유효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득격차로 생기는 문화 향유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리(里)' 단위까지 촘촘하게 퍼지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최은숙 기자

신나는 예술여행 artstour.or.kr
점자 학습 사이트 점자 세상 braillekorea.org
문전성시 블로그 blog.naver.com/ctspace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주요 지원 프로그램과 예산 (단위 : 만원)

구분	사 업 명	2009년 예산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그물망' 프로그램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20억
	지방 문예회관 공연 지원	40억
	문학관, 도서관 문학 작가 파견 프로젝트	10억
	지방 문화원 실버문화학교	19억
	소외계층 문화 향유 프로그램 지원	62억
	소외지역 학교 대상 우수 공연 프로그램	21억
	찾아가는 국악원 (중앙 50, 민속 37, 남도 48, 부산 65)	1억5300
	찾아가는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8억8100
	지방순회공연	25억
	찾아가는 합창단(지방 공연)	2억1000
소외계층과 서민의 참여를 돕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	소외계층 청소년 미술관 탐방	1100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민속문화교실	1억
	문화 바우처	40억
	스포츠 바우처	19억6000
	복지관광	8억
	소외지역(계층)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	15억6600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7억5500
	'책다모아' 기증사업을 통한 서민 도서 지원	1억7700
	함께누리 지원사업	19억
	독서 장애인 및 소외지역 독서활동 지원 -점자 및 녹음도서 제작 보급 -소외지역 · 계층 아동 독서활동 지원	2억5500
	장애인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대체 자료 제작 보급	2억
	장애인 정보 누리터 운영	1억8000
	장애아 미술관 소풍	1900

* 기타 프로그램과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02-3704-9114)로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판화실천모임 들판'은 강원 홍천·평창, 경기 여주·양평, 경북 의성, 경남 함안·창녕, 제주 등을 순회하며 아이들과 판화 작업을 하고 있다.

예술강사 파견 등 일자리 8000개 지원

문화사업과 일자리의 앙큼한 동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파견, 공공미술 프로젝트, 소극장·문예회관 상주 예술단체 육성, 생활체육 및 문학 창작 지도 등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가는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은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경택 기자

예술강사로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문지영 씨(맨 왼쪽)는 정부의 예술강사 파견사업이 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 없이 동작과 표정으로 표현할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과장되게 해야 돼. 자, 더 극적인 모습을 만들어 보자."

10월 13일 서울 용산구의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창의재량수업 시간. 한 면이 거울로 돼 있고 조명까지 갖춘 연극전용교실에서 예술강사 문지영(42) 씨가 학생들에게 연기지도를 하고 있다. 20년 경력의 연극배우인 문 씨는 이 학교 1학년 12개 반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극을 가르친다. 한양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뮤지컬단을 비롯한 여러 극단에서 활동했던 문 씨는 2002년 예술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린인터넷고와 인연을 맺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초중고교와 사회복지시설에 예술가를 파견하고 기자재와 현장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4만원씩 받는 강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극, 국악,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4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예, 사진, 디자인까지 분야가 확대된다.

8천여 개 일자리 창출로 문화예술인 경제난 타파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연극인들의 경우 1년에 잘해야 2, 3편 작업을 하는데 출연료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수입이 형편없거든요."

초창기에는 예술강사가 직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문 씨는 강사 연수가 끝나자마자 '연극교육강사협의회'를 조직했을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 영국에 갔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연극강사의 지도로 〈햄릿〉을 공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예술 발전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고,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므로 예술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 연수를 가서 보니 우리의 예술교육이 결코 미국보다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술을 통한 창의교육을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술강사를 양성하는 러닝코치로도 활동하고 있는 문 씨는 예술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연극을 통해 미래의 최고경영자(CEO)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연극이야말로 자신감, 발표력, 창의력을 길러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교육 보드게임 '리치에셋'을 개발한 고명(37)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은 전문기술이나 자본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독특한 콘텐츠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고 씨의 '리치에셋'을 비롯해 37개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콘텐츠 제작 및 기술 개발, 저작권 등록 및 거래, 시장조사, 창업교육, 마케팅 및 유통 등 일련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창업지원이 정보기술(IT)이나 신기술 등에 치중되고 사업자나 법인이 대상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누구든 아이디어를 문화상품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보스턴컨설팅회사그룹에서 일했던 고 씨는 2000년 벤처 바람이 불 때 온라인게임 회사를 차렸다가 망한 경험이 있다. '묻지마 투자'가 만연했던 시절, 외형에만 신경 썼지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큰 빚을 지고 절망하다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가 재무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빚을 해결한 그는 재무컨설팅의 경험을 살려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만들었다.

문화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술강사 파견,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학 창작 지도 등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작은 물건을 살 때는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이 자산 투자는 정확한 지식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더군요.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임을 생각한 거죠."

일자리 늘리고 문화소외계층 줄이고 '일석이조'

큰 자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만들 수 있는 보드게임을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게임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4년 동안 전 세계의 2백여 가지 보드게임을 연구한 후 바둑, 블루마블, 모노폴리, 마작, 라이프게임, 트레이닝카드게임 등을 결합해 만든 것이 '리치에셋'이다. '리치에셋'은 은행, 채권, 주식, 땅, 건물, 사업 6개 분야에 간접투자를 함으로써 자산을 획득하면서 결혼,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투자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노하우가 게임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게 고 씨의 설명이다.

'리치에셋'으로 고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돼 2천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8월에는 '이달의 우수 게임상'도 받았다. 또 서울시의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도 선발돼 7월부터 강북청년창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금지원뿐 아니라 마케팅이나 홍보까지 신경 써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문화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국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사업이 활성화되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국가정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 씨는 제품은 만들었지만 아직 홍보와 판매 등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학교,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의 금융교육 자료로 '리치에셋'이 사용되는 게 그의 바람이다.

문화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백57개 사업에 1천3백49억원이 지원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술강사 파견, 공공미술 프로젝트, 소극장·문예회관 상주 예술단체 육성 등 예술뉴딜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문학 창작 지도 등에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재무컨설턴트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만든 고명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 개관 시간 연장을 통해 예술계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청년인턴, 뉴미디어,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수출 강국을 선도할 콘텐츠산업 전문인력과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 문화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2백 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3천여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박소정 사무관은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예술가는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소외계층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슬로시티 · DMZ 공원 · 걷기 좋은 '토지'…

4대강 따라 녹색여행 떠나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녹색관광 중심지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유역을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게 권역별로 특화하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현상, 이주노동자 · 다문화가정 등의 확산에 따라 문화 수요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구촌 공동의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고유의 품격 높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을 문화와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물길'로 재탄생시켜 녹색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한반도 생활문화의 발원지로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강 유역은 선사시대부터 역사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전통을 이어왔고, 금강 유역은 섬세한 백제문화자원과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을 보존해왔다. 또 영산강 유역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물과 독특한 남도문화가 발달돼 있고, 낙동강 유역은 고대 가야와 신라의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이러한 4대강의 물줄기를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문화 · 관광 · 레저 · 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할 경우,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를 통해 국제적 문화관광 휴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을 구축해 권역별로 특화하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친환경 문화관광자원 개발… 녹색성장 한 축 발전

이를 위해 따로 꾸려진 문화관광 분야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다양한 유 · 무형 문화자원 복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등 테마형 관광상품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각종 레저시설 확충 등이다. 정부는 또 4대강 유역의 문화 · 여가 · 레포츠 공간 확충과 다양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함께 국제적인 경

동아DB

문화체육관광부는 늪지 등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녹색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최대 자연 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

쟁력을 갖춘 친환경 문화 · 관광 · 레저 휴양지로서의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51개 사업을 통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총 5백22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강 주변의 소나기마을 조성(양평) 등 6개 사업에 76억4천만원, 금강 주변의 대청호 인근 쉼터 조성(옥천) 등 9개 사업에 1백21억1천만원, 영산강 주변의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조성(나주) 등 13개 사업에 1백10억9천6백만원, 낙동강 주변의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영주) 등 23개 사업에 2백13억1천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적 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도입,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개설, 자전거 여행길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경관 감상, 수상레저 체험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현재 4대강 유역에는 지정문화재 1백10개, 매장문화재 2백51개 등 3백61개 문화재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과거와 현재, 유 · 무형의 문화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

동아DB

4대강 유역에는 자전거 여행길 등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관광기반 시설이 조성된다.

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수상, 육상 여건에 맞춘 레저시설의 가이드라인 수립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길,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레저시설 조성 △수영 마라톤 및 카약 마라톤 국제대회 개발 등이 추진된다.

지역별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역사문화자원 복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생태관광자원 개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백두대간을 친환경 자원화하기 위해 '지리산 천왕봉~고성 향로봉'의 6백84킬로미터 구간을 생태관광의 관점에서 개발하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는 강화 둘레길, 동해 해안길,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여강(남한강) 따라가는 역사문화 체험길 등 7곳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서울에서 박경리의 토지길을 찾은 주부 이태연 씨는 "친구들과 걷기에 좋은 길을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됐다"며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차분히 걷다 보면 소설 〈토지〉를 읽었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의 레일바이크와 같이 전국 22개 구간, 7백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폐쇄철로와 간이역도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관광 상품으로 거듭난다. 또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신안, 장흥, 담양, 완도)는 녹색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습지와 늪, 갯벌, 철새 도래지, 비무장지대(DMZ) 등을 연계한 녹색관광 코스도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5대궁 등 문화재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템플스테이, 서원스테이 등 해외 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의료관광, 전시컨벤션산업 등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관광 안내체계의 전국적 확충 및 명소화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본격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녹색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갑이 열리는 관광한국'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능을 잃은 화력발전소와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한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갤러리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처럼, 지역의 전통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로 재생시키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군산의 내항(근대사·공연), 신안의 염전과 소금창고(소금체험), 포천의 폐채석장(돌조각) 등 5개소는 앞으로 문화예술 창작벨트로 조성되며, 옛 서울역사(驛舍)는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G

글 · 김지영 기자

南美도 韓流 세계로 세계로

'원더풀 코리아(Wonderful Korea).' 세계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때 내는 감탄사다. '겨울연가' '대장금'으로 시작된 한류 드라마 열풍에 이어 '난타' '비보이'로 대표되는 한국의 공연문화 등 세계 속 한국의 문화예술은 이제 '코리아(Korea)'를 기억하게 만드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류 드라마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태양을 삼켜라'(사진), '제중원'(내년 1월 방영 예정) 등 TV드라마 제작에 각 5억원씩을 지원했다.

대학생 이혜은(24) 씨는 2년 전 남미 배낭여행 중 여러 차례 신기한 경험을 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힐 때마다 현지인들이 '이영애' '대장금'을 말하면서 반가워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행을 하며 만난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욘사마' '배용준'을 외치며 그에게 한국의 연예계 소식에 대해 빠짐없이 물었다.

그는 남미 파라과이에 머물 때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묻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문화에 친숙해졌다" "한글이란 글씨가 매력적이다"고 말하는 등 한국문화에 푹 빠진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대중문화는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이웃 일본은 물론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류의 일등공신은 단연 드라마 콘텐츠다. 대표적인 작품은 배용준을 '욘사마'로 만든 '겨울연가'다. 2003년 4월 일본 NHK 위성방송이 '후유노소나타'로 방영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 드라마'의 기폭제가 됐다. 이후 2004년 9월 중국 후난위성TV가 방영한 '대장금'은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전역을 넘어 아프리카, 유럽 등 60개국에 수출돼 전 세계에 대장금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불던 한류는 현재 한류(寒流)라 불릴 정도로 그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 '겨울연가' '대장금' 이후로 한국 정서를 반영하면서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 등장하지 않았고, 제작비가 부족하거나 한류 스타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작품성에 문제가 있었던 작품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방송영상 콘텐츠 지원을 시작했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TV영화 등 총 9편의 영상 콘텐츠에 24억원의 제작비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침체된 콘텐츠 제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류시장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두 편의 대작 드라마에는 각 5억원씩 지원하기도 했다.

영상 콘텐츠에 24억 지원… '한류 드라마' 이어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드라마가 지난 7월 방영된 지성, 성유리 주연의 '태양을 삼켜라'다. 한국 드라마 최초 아프리카 올 로케이션으로 화제를 모았던 '태양을 삼켜라'는 10월 3~9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국제 콘텐츠 전시회 '밉콤(MIPCOM)' 쇼케이스 행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한 글로벌 전략상품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 서양의료기관을 배경으로 한 대하드라마 '제중원', 중년 남성이 26세 연하 여성을 만난다는 내용의 TV영화 '페어러브' 등도 제작 지원을 받아 내년 초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성임경 책임연구원은 "2002년부터 우수 창작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해왔는데 지난해 말 독립제작사 제

동아DB

대표적인 넌버벌 퍼포먼스인 '난타'(위)와 세계 메이저 비보이 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유명해진 '비보이'(아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때 꼭 한번 들르고 싶은 공연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작 지원이 가능하게 돼 드라마와 TV영화까지 지원 분야와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대작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통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브랜드를 높이는 데는 공연문화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을 찾으면 '난타' '점프' 등 넌버벌 퍼포먼스가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인니 찌아찌아족 한글로 만든 교과서로 공부해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공연을 한자리에 모아 지난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2009 공연문화축제 코리아 스파클링 페스티벌(Korea Sparkling Festival)'을 열었다. 한류 스타 및 아시아 유명가수가 참가하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한국 전통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연희축제 등의 공연들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이 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비슷한 시기에 비보이 경연대회도 열렸다. 세계 5대 비보이 메이저대회로 자리 잡은 'R-16 코리아 스파클링, 인천 2009'로 지난 9월 25~27일 인천에서 15개국 16개 팀이 참가해 공연과 자유 배틀 경연을 펼쳤다. 올해로 3회째인 비보이 경연 대회는 국내 비보이 춤꾼들을 발굴해 양성하는 한편 해외 비보이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댄스문화의 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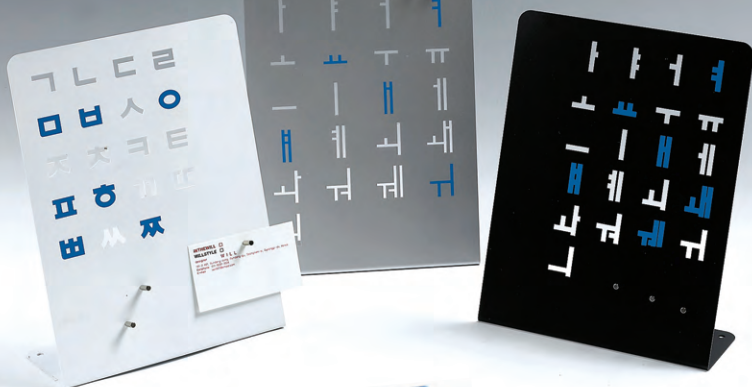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 관광상품팀 박충경 팀장은 "'난타' '점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등 넌버벌 퍼포먼스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신규 공연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해외 홍보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해외전시 박람회, 공연관광 로드쇼 등에 참여해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고유문화인 '한글' '한국어'도 세계

동아DB

속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줄 브랜드로 성장해가고 있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종이 만든 28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 체계" "한국의 문화 창작품 중 최고의 작품" 등 전 세계 유명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과 독자성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올해 7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주 부톤섬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표음문자로 받아들였다. 현재 찌아찌아족 밀집지역인 소라올리오 지구의 초등학생 40여 명과 고등학생 1백40명이 한글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통해 찌아찌아족 말을 배우고 있다.

한글 보급의 성과와 더불어 한국어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어 보급 확대를 우선 추진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한국어 교실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전환하고 2015년까지 국내외에 세종학당 3백50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열어 국가별 교원 네트워크 결성을 지원해주고,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제공

한글 문화 ·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메모보드(사진 위)와 한글 모양의 자. 앞으로 상용화돼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한글 디자인 제품과 한복(사진 오른쪽)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문화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동아DB

한글과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글을 이용한 한글 디자인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한글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람은 이상봉 디자이너다. 그는 2006년 2월 파리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한글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명시나 감성적인 편지 글귀를 넣은 옷 디자인으로 한글의 미적 감각을 살렸다.

일반인들도 한글 디자인에 전폭적으로 참여하며 한글 디자인 상품 상용화를 이끌고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아래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한글 문화상품 ·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한글 모양의 자, 외국인을 위한 한글이름 스탬프,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용한 메모보드, 한글을 활용한 휴대폰 고리와 자음 응용 브로치 등은 지난 3월에 발표된 4회 공모전 수상작들이다. 이 대회에서 수상한 한글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앞으로 상용화돼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차재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한글 디자인의 실용성을 살리는 한글 문화상품 ·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한글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서체 개발도 지난 93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OECD 각료회의에 한식 만찬… 각국 관료 극찬

한편 지식경제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코트라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실시해온 국가브랜드맵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대표 연상 이미지 1위는 기술력, 2위는 한국음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을 떠올릴 정도로 한국은 미식가의 나라로 알려져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한식을 제대로 알리고 체계적으로 한식문화를 키워가기 위해 한식 세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란 테마 아래 한식산업 기반 프로젝트, 한식 이미지 업 프로젝트, 알기 쉬운 한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한민국 브랜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선두주자는 한복이다. 매년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한국 대표가 어떤 스타일의 한복을 입는지 화제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한복은 미의 상징이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세계화추진팀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쇠갈비찜, 비빔밥, 시금치된장국 등 한식 만찬을 내놓아 OECD 국가 대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9일에는 방한한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부인 미유키 여사를 위해 직접 김치를 담글 수 있는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식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선두주자는 한복이다. 매년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한국 대표가 어떤 스타일의 한복을 입는지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한복은 미의 상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차세대 신진 한복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복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한복, 바람에 누비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10월 23~24일 열린다.

김태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담당자는 "이번 행사로 한복의 전통과 품격을 간직한 디자이너들이 한복의 새로운 경향과 세계로 진출하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부터 난타, 비보이 등 공연문화, 한글, 한식, 한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프리미엄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해 세계 속의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G

글 · 김민지 기자

세계가 반한 우리의 전통문화

조선왕릉·동의보감·처용무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선조들이 남긴 뛰어난 문화유산들이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조선왕릉, 동의보감, 강강술래 등 우리의 얼과 멋이 깃든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잇따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를 높이는 세계유산을 소개한다.

동아DB

지난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중 경기 여주군에 위치한 영릉(위)과 10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는 조상의 얼과 멋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가족과 단풍 나들이 코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으니 지난 6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이다. '신(神)의 정원'이라고도 불리는 조선왕릉은 조선의 역사, 건축양식, 미의식, 생태관이 담긴 문화의 결정체다. 조선왕릉처럼 5백 년간 지속된 왕조의 무덤이 고스란히 보존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조선왕릉은 경기 일대와 강원 영월군의 단종 장릉, 사후에 추존된 왕과 왕비의 능 등 40기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단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과 후릉은 제외됐다. 특히 종묘와 창덕궁에 이어 조선왕릉도 세계유산이 되면서 조선왕조 관련 문화유산 대부분이 세계유산으로서 그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게 됐다.

유네스코는 1972년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최근 등재된 조선왕릉까지 8건의 문화유산과 2007년 최초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와 더불어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무형문화유산도 발굴해 등재하고 있다.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한 달 뒤에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의보감을 포함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등 총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동의보감 기록유산 등재… 역사적 진정성 입증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의학서인 허준의 동의보감은 16세기 말까지 간행된 동양의학 주요 의서의 집대성이라 일컬어진다. 병이 생기기 전 치료한다는 전통의학의 관념에 기초해 중세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동의보감은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독창성과 역사적 진정성이 입증됐다.

10월에는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등 무형문화재 5건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설, 추석 등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명절놀이인 강강술래, 지배층에 대한 풍자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남사당놀이,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을 비는 전통 불교의식인 영산재,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 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궁중무용 중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인 처용무가 세계무형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지난해 등재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를 포함해 총 8건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지니게 됐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해 범사회적 인식과 이해 도모 및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굿 다운로더 캠페인 본부

안성기, 하지원, 김하늘, 엄정화, 장동건, 박중훈 등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9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야외무대에서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 열렸다.

시장 규모 100조원… 수출 규모 78억 달러…

상상력 · 감성 · 지식이 '창조 경제'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전문인력 양성, 핵심 문화기술 개발, 투자 유통환경 개선 등 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주혁, 김태희, 김하늘, 송강호, 신민아, 엄정화, 장동건, 정우성, 하지원, 현빈….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영화배우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굿 다운로더 캠페인'의 '스타 서포터스'를 맡은 것. 이들은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인 10월 9일 합법적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당당하게 영화를 즐기는 굿 다운로더에게 감사하는 한편 다른 팬들에게도 굿 다운로더가 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하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공동위원장 박중훈 씨는 트위터를 통해 "굿 다운로더 캠페인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라 합법 사이트에서 좋은 다운로드를 하자는 긍정적인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안성기 씨는 지난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주최한 '저작권 클린 포럼'에서 "창작물은 당연히 유료여야 한다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 활성화되면 그 효과는 수천억원 이상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의 조사에 의하면 불법 복제율이 10퍼센트만 줄어도 2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1천억원 이상의 산업 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창작물은 당연히 유료" 굿 다운로더 캠페인 선포식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약 58조6천억원. 올해 상반기 콘텐츠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4퍼센트 증가(콘텐츠산업 생산지수 2009년 상반기 117, 2008년 상반기 114.3)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전체 소비지출이 전분기 대비 3.3퍼센트 증가에 그친 데 비해 문화, 오락 소비지출은 14.6퍼센트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지난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보다 28.75퍼센트 증가한 18억9천25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수출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산업 수출은 10억9천3백86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40퍼센트 늘어나 콘텐츠산업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콘텐츠산업은 매출액, 수출증가율 등 경제지표상 성과뿐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닌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아울러 움직이는 브랜드로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전문인력 양성, 핵심 문화기술 개발, 투자 유통 환경 개선 등 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콘텐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관련 기관을 통합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열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시행

또한 국내 콘텐츠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개관했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력과는 별도로 2010년까지 게임기업 3백개 인큐베이션, 게임 개발 전문인력 2천명 양성, 차세대 게임 2억5천만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문화산업계정에 총 3천1백37억원을 확보했고, 고부가 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 1백94억원에서 올해 8백65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거래를 위해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콘텐츠기업들의 콘텐츠 제작 완성을 보증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세계가 상상력과 감성이 기술, 지식,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창조 경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이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철민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콘텐츠산업은 우리가 창조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시장 규모 1백조원, 수출 규모 78억 달러, 고용 규모 1백만명을 달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대중음악, 디지털 방송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산업 인재 육성에 힘쓸 것"

조영철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이다. 이재웅(56) 초대 원장은 "콘텐츠산업은 여러 장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통합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OSMU ·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되는 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콘텐츠산업은 인적자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적자원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지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인류 보편의 재미와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은 인재양성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있고, 스토리 창작자나 창작집단을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곧 스토리 공모전을 열어 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OSMU 제작 지원, 마케팅과 컨설팅, 법률계약, 해외 진출까지 도울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 같은 사람을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주요 기둥이 될 테니까요.

스토리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결합돼야 합니다. 콘텐츠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콘텐츠 테크놀로지에서는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이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CG 기술은 미국의 70퍼센트 수준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따라잡고 산업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유망 콘텐츠 개발이나 육성 사례를 소개해주십시오.

통합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실적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내년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근 장르 간 협업 및 콘텐츠 수익 극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OSMU 킬러콘텐츠로 영구아트 심형래 감독의 영화 〈더 덤 마피아〉, 쌈지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브루미즈〉, 삼화네트웍스의 〈텔레시네마〉를 선정했습니다. 이 작품들이 해외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한 번 지원해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성공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 우리 콘텐츠산업을 한층 발전시킬 것입니다.

길 위에서 찾는 꿈 그리고 희망

소외층 초청 '청소년여행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을 특별한 여행에 초대했다.
우리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여행문화학교'가 바로 그것.
11월 중순까지 운영되는 청소년여행문화학교를 소개한다.

사회문화나눔협회

9월 경북 영주 소백산에서 처음 열린 청소년여행문화학교는 소외 청소년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을 느끼며 멘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희망 프로젝트다.

울긋불긋 단풍이 살짝 물들기 시작한 지난 9월 24일 경북 영주 소백산 자락. 어른 하나에 청소년 2, 3명씩 짝을 이뤄 총 10팀 남짓이 소백산 산행을 시작했다. 3시간에 걸쳐 고개 하나를 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산행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래도 괜찮았다. 애초 이들의 목적은 산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죽계구곡(竹溪九曲)을 따라 걸어가면서 이들이 진정 하고자 했던 것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 길 위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것이었다.

지난 9월 24~25일 영주 소백산에서 '청소년여행문화학교'가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청소년여행문화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희망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시범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이 청소년여행문화학교의 특징이다. 청소년 상담 경험자 등 청소년 멘터링이 가능한 멘터 1명이 2, 3명의 청소년과 함께 걸으며 긴밀한 소통을 시도한다. 또한 여행 때마다 음악, 미술, 연극, 춤과 같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내면을 치유할 치유전문 멘터 1명,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특별 멘터 1명도 여행에 동참한다.

대안학교 학생 23명과 영주 소백산서 1박2일

오는 11월 중순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인 청소년여행문화학교의 첫 번째 주인공들은 23명의 대안학교 아이들이었다. 10명의 멘터와 배우 정수영 씨, 춤 치유전문가 전소연 씨가 각각 특별 멘터와 치유전문 멘터로 함께했다.

영주 소백산에서 1박2일 코스로 이뤄진 여행문화학교는 첫날 소백산 자락길 산행에 이어 저녁에는 춤 치유 전문가 전소연

씨가 춤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었다. 춤 치유 시간에는 몸 풀기 체조, 음악에 맞춰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꼬리잡기, 둥근 천 안에서 다 함께 움직이기 등이 이루어졌다. 함께 참여한 멘터들에 의하면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민망해하던 아이들이 점차 놀이를 즐기기 시작했고, 스킨십을 통해 아이들끼리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멘터와 함께하는 여행길… 마음 나누는 따뜻한 情의 자리

둘째 날에는 특별 멘터와의 특별한 만남이 마련됐다. 특별 멘터로 참여한 배우 정수영 씨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과따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처음엔 연예인이라서 반감이 있었는데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랑 편하게 얘기해줘서 좋았다" "사과 따고 장난을 치면서 친해졌다"며 함께하는 내내 밝은 표정을 보였다.

멘터로 참여한 마술사 박종국 씨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학창 시절 방황했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 경험담과 마술을 통해 꿈을 갖게 된 사연을 고백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더니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더군요.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해결해야 했고, 그것이 너무 벅찼다고요. 그래서 자꾸 쉬운 길을 택했는데 자기 옆에 기대고 의지할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나쁜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짠했어요."

박 씨는 아이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기엔 1박2일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아이들 또한 짧은 만남이 아쉽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시에서 평범하게 만났더라면 이 정도의 교감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속내를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었죠."

사회문화나눔협회

아이들은 1박2일 동안 특별 멘터인 배우 정수영 씨와 사과를 따면서 자연체험을 하거나(왼쪽) 춤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여행문화학교는 올해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고등학생 이하의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탈학교, 장애, 저소득층 등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내년부터는 범위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올해의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사회문화나눔협회와 (사)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회 참가 인원은 25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성운 사무관은 "입시 위주의 교육, 자극적인 현대문화, 각종 사회문제 등이 청소년들의 정서를 황폐하게 하고 지치게 만든다"며 "청소년여행문화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고민과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찾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사)사회문화나눔협회 Tel 02-2235-4607 scsa.kr
(사)한국청소년재단 Tel 02-796-7855 dreamyouth.or.kr

2009년 청소년여행문화학교 일정표

※참고 : 사정에 따라 참석하는 예술치유 전문가와 특별 멘터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차	일정	지역	대상	주제	프로그램	특별 멘터	주관
1	10월 23(금) ~25(일)	강원 삼척, 경북 영덕 (동해트레일)	게임·컴퓨터 중독자 자녀	바다에게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미술	신날새 (해금연주자)	(사)한국청소년재단
2	10월 30일(금) ~11월 1일(일)	경남 하동 (박경리 토지길)	저소득층 청소년	어머니 땅 품에 안긴 '나'	음악	휘진 (팝페라가수)	(사)한국청소년재단
3	11월 6일(금) ~8일(일)	전남 영암, 강진 (정약용 남도 유배길)	다문화가정 청소년	소리 안에 담긴 '나'는 아름다워	춤	김남희 (여행작가)	(사)사회문화나눔협회
4	11월 13일(금) ~15일(일)	전북 고창 (고인돌 질마재 따라 100리길)	한부모가정 청소년	그려봐! 길 위의 '나' 그리고 우리	미술	박종국 (마술사)	(사)한국청소년재단
5	11월 21일(토) ~22일(일)	인천 강화도 (심도기행 하늘길)	장애청소년	하늘을 달리는 '나'	미술	김규식 (첼리스트) 김세아(탤런트)	(사)사회문화나눔협회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

"콘텐츠 진흥기관 통합은 큰 성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문화정책과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금래(57)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넉넉한 미소처럼 부드럽게 질문하지만 그 내용은 야당 의원 못지않게 날카롭고 매서워 국감 관계자들을 긴장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생활 속에서의 문화정책 실현 및 우리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융·복합 환경에 부응하는 통합콘텐츠정책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문화정책 가운데 좋은 정책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고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 못골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디지털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콘텐츠진흥기관을 구축한 것도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와 감성을 중요시하는 미래시대의 사회경제 환경에 매우 적합한 산업으로 선진국들이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 '콘텐츠산업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출범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문화콘텐츠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술뉴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와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인턴 연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금래 의원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 교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가능케 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문화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과거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문학의 번역, 문화소개 책자 발간, 외국 박물관에 한국관 설치 등 우리 문화를 세계에 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통신 및 전자기술의 발달로 범세계적인 소통체계가 구축돼 범세계적인 문화 형성이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가 프랑스 국립바스티유오페라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임명됐던 것은 그만큼 프랑스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잘 알리는 노력과 더불어 외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과 교류를 가속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송훈석 무소속 의원

“문화소외계층 배려와 예술단체 자생 도와야”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큰 틀은 맞는데 성과는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하며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며 지역민들과 저소득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다. 의원회관은 새벽까지 국감 준비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어렵게 만난 무소속 송훈석(59) 의원은 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처음 제시한 거창한 기조에 비해 이뤄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는 문화정책 기조로 중앙, 지방, 민간의 실용적 역할 분담과 문화의 공공·산업적 가치 확대, 투자 촉진 등 자생력 강화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정하듯 현재 중앙, 지방, 민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문화기반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콘텐츠 진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미약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기술, 전문인력, 유통구조 선진화도 미흡한 상태라고 봅니다.”

송훈석 의원은 문화의 산업화가 우리 문화의 특징을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예술 분야도 일부 여유계층이나 수도권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유계층과 경제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가 큽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이른바 문화예술소외계층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4대강과 지역문화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4대강 사업과 지역문화를 무리하게 접목하기보다는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내실화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관광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자원 모델 발굴 외에 지역의 관광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 및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많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환경파괴와 문화유산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실용주의’와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문화도 산업적 측면에서 적극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영화, 캐릭터, 디자인 등 세계 수준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산업화가 자칫 우리 문화만이 갖는 전통의 미, 예술성 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정책을 펼 때 고려돼야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 정규 직업이 있는 경우는 3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예술단체들의 자생력도 약하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예술인공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조영철 기자

“아이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 돌려줘야죠”

김종서 디지털 싱글 수익금 전액 환경단체 기부키로

가수 김종서 씨가 최근 '별 이야기'라는 디지털 음반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수익금 전액을 환경운동단체에 기부하기로 해 화제다. 환경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를 만났다.

'겨울비' '대답 없는 너'를 부른 록 가수 김종서(44) 씨가 환경지킴이로 나섰다. 지난 9월 환경을 주제로 한 '별 이야기'라는 디지털 싱글 음반을 낸 것.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별 이야기'는 미디엄 템포의 무게감 있는 정통 록 사운드에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남겨주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수익금 전액을 환경운동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끈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환경운동에 보탬이 될까 방법을 고민했죠. 저는 가수잖아요. 제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만 있었지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죠. 그러다 문득 올해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씨는 정규 앨범 내는 것도 미룬 채 1년 가까이 '별 이야기'를 준비했다. “나이 들면서 점점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나'를 버리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환경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일을 한다니까 주위에서 도움과 격려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마음은 굴뚝같은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앞장서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인 거죠.”

'별 이야기'는 김 씨가 작곡하고 요즘 '국민할매'라는 애칭으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록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가 가사를 썼다. 김태원 씨와는 1985년 부활의 전신인 '디앤

드'에서 초대 보컬과 리드기타리스트로 만난 이후 20년 넘게 우정을 쌓아왔다.

"좋은 일은 여럿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김태원 씨에게 작사를 부탁했더니,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부활 멤버들도 기꺼이 연주로 동참해주었어요. 모두들 고맙죠."

노래 '별 이야기'는 "어릴 땐 눈이 부시게 수많던 별이었지만 지금은 어둡게 너무나 어두운 밤이 되었지" "어릴 땐 투명하게 푸른 빛 강이었지만 지금은 흐리게 너무나 흐리게 변해버렸지" 하며 환경이 오염된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노래한다.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는 길목이라면 내일을 위해 지금 나는 무언가 해나가야 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원히 잠들지 않는 별을 돌려주자"고 호소한다.

"당신을 위해, 미래를 위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김 씨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강원 태백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태백이란 곳은 역설적인 곳이다. 한쪽으로는 청정지역이, 또 다른 한쪽으로는 탄광촌이 있다. 즉, 생명의 물과 시커먼 죽음의 물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어린 마음에 참 충격적이었다"는 그는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자신의 안에 늘 잠재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제 안에 환경이란 코드가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지 않나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그는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려놓았으니, 그것을 되돌려놓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되돌려주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환경을 사랑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개인 컵을 잊지 않고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해요. 제가 커피를 무척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일회용 종이컵을 쓰게 됩니다. 그때마다 지구에 몹쓸 짓을 한다는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개인 컵을 쓰는 것도 큰 환경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분리수거도 아주 철저히 하고 있다. 요즘은 전기자동차에도 관심이 많다.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제일 먼저 구입할 생각이라며 "빨리 개발이 완료돼 우리나라에서 시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제 안에 환경이란 코드가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후손들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지 않나요?

연합

환경을 주제로 한 노래를 발표한 김종서 씨는 환경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그가 환경을 위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별 이야기'를 다운받으라고 권하는 일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노래를 다운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제 노래를 다운받으면서 지불한 돈이 전액 환경을 위해 쓰이거든요. '당신을 위해 다운 받으세요'라고 말해요. 환경을 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는 "음악의 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워 환경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콘서트에는 빠뜨리지 않고 참여하는 등 음악을 통해 환경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는 "죽을 때까지 환경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일반인이었으면 아마 생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시작할 때의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채 계속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는 거죠."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철도차량관리단 김윤섭 씨

"점심때 폐지 모으기 7년… 기부는 내가 살아가는 힘"

김윤섭 씨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바쁘다.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 내에 있는 폐지를 거둬들여 고물상에 팔기 때문이다. 그 수익금은 7년째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이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기부의 즐거움을 들었다.

서울 용산구 수도권 철도차량관리단에서 일하는 김윤섭(35) 씨는 점심시간마다 분주하게 휴게실을 돌며 폐지와 빈 종이상자를 모은다. 이것을 고물상에 팔아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우간다, 몽골 어린이와 국내 소년소녀가장을 도운 지 벌써 7년째다.

1999년부터 철도차량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김 씨가 기부를 시작한 것은 2002년께 우연히 책에 실린 월드비전 광고를 보고서였다고 한다.

"'단돈 1천원이 몇 명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울 수 있다'는 구절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적은 돈이라도 기부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죠."

이후 월드비전, 기아대책, 북한밀가루보내기 단체까지 그가 다달이 돈을 보내는 단체는 하나둘 늘어갔다. 하지만 당시 1백만원 남짓이던 월급에서 매달 9만원씩 기부하는 게 부담이 됐다. 빠듯하게 살림을 꾸리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김윤섭 씨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바쁘게 회사 내의 폐지를 모아 불우 이웃을 돕는 기부금을 마련한다.

효과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김 씨의 머릿속에 노인들이 회사 후문 앞 고물상에 폐지를 모아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차피 버려지는 전동차부품 상자와 휴게실에 버려진 신문 등을 모아 기부금을 충당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폐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폐지들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보다는 고물상에 가져다 팔면 돈도 되고 자원 재활용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폐지 수거… 동료들도 도와줘요"

그때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아껴가며 부지런히 폐지를 모아왔다. 휴게실에 동료들이 보고 내버려둔 신문, 전동차 부품을 담았던 빳빳한 종이상자, 부품이 망가질까봐 꼼꼼하게 싼 속지까지 김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했다.

김 씨는 모은 폐지를 회사 빈터에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물상에 가져다 판다. 폐지가 일주일에 보통 70~80킬로그램, 많이 모을 때면 1백 킬로그램까지 모으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5만원 정도다. 여기에 김 씨의 용돈을 보태 아동복지 후원단체 네 곳에 매달 9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후원금은 몽골, 우간다 소녀와 우리나라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는 데 쓰인다.

"제가 처음 후원할 때 중학교 1학년이던 여학생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요. 마치 제 딸이 입학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입학 기념으로 지갑을 선물해줬는데 이런 게 바로 기부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김 씨는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된 여학생 대신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새롭게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 남학생은 몸이 편찮은 홀어머니를 간호하며 가장 노릇까지 하고 있어 더욱 마음이 쓰인다고 한다.

김 씨의 따뜻한 손길이 스치는 곳은 국내뿐만이 아니다. 몽골에 사는 콩고루줄이라는 이름의 8세 여아를 4년째 돕고 있고, 2년 전엔 12세 된 우간다 어린이도 돕기 시작했다. 우간다 어린이는 김 씨가 매달 보내주는 3만원으로 돈 걱정 없이 학교에 다

김윤섭 씨는 "처음 아내가 이 일을 왜 하냐며 반대했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가진 것을 나눌수록 기쁨이 두 배가 된다"고 말한다.

닐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걸 포기하고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보낸 돈이면 가족 한 달 생활비가 해결돼 아이가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뿌듯해했다.

김 씨의 월급은 처음 기부를 시작할 때보다 두 배로 늘었지만 네 살배기 아들과 곧 태어날 아이가 있어 생활 형편은 지금도 빠듯하기만 하다. 그래서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는 게 여전히 부담이다. 하지만 김 씨의 아내도 어느새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왜 힘들게 나서서 폐지를 모으냐' 고 말하던 아내가 이제는 텔레비전에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우리 남편 장하다'고 말해요. 기부는 좋은 일이니까 어렵더라도 앞으로도 꾸준히 하자며 저를 격려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요."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왜 힘들게 나서서 폐지를 모으냐' 고 말하던 아내가 이제는 '우리 남편 장하다' 고 말해요. 기부는 좋은 일이니까 어렵더라도 앞으로도 꾸준히 하자며 저를 격려하기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요."

회사 동료들도 시간 날 때마다 김 씨를 틈틈이 도와준다. 같이 폐지를 모으기도 하고 무거운 폐지를 옮겨주기도 한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70~80명의 동료들은 점심시간마다 분주하게 회사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김 씨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의 후원자가 됐다. 7년째 김 씨가 폐지를 모아다 파는 회사 앞 고물상의 60대 노부부도 "(폐지를) 더 많이 가져오면 (폐지 값을) 더 많이 줄게" 하며 그를 격려한다. 그의 '선행 바이러스'가 서서히 주위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지저분한 걸 깨끗이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어차피 버리는 폐지를 모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해요."

부지런히 '폐지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김 씨는 "(기부금) 액수를 늘려가면서 앞으로도 쭉 사람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G 글 · 김연정(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

따로 또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활기

낮의 열기가 가시고 밤의 서늘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10월 18일 오후 8시(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시의 국립컨벤션센터. 이곳에서는 아리랑TV와 베트남 국영방송(VTV) 공동 주관으로 '한국-베트남 우정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1부에서 양국 전통문화 공연이, 2부에서는 소녀시대, U-KISS, god의 손호영 등 한국의 인기가수를 포함한 양국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베트남 우정 페스티벌'은 베트남의 '한국주간(Korea Week·10월 18~22일)'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메인 행사였다. '한·베트남 우정 페스티벌'을 필두로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행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됐다. △외교통상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페스티벌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 포럼 △지식경제부는 한·베트남 CEO 포럼과 비즈니스 투자포럼 △국토해양부는 국토개발기술포럼과 신도시·수자원 관련 전시회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데이 행사, 한국영화제, 한식 전시회 △교육과학기술부는 베트남 장학회 결성, 인적자원 개발 포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행사, 직업훈련 기자재 기증 행사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개발센터 개소식 행사 등을 열었거나 열 계획이다.

'한-베트남 우정 페스티벌' 개최

한-베트남 친선주간 특집 다큐멘터리로 '한강 르네상스, 베트남에서 부활하다'가 10월 18일부터 방영돼 베트남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리랑TV와 베트남 VTV가 공동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에는 '한강 르네상스'를 베트남 하노이의 '홍(Red)강 프로젝트'에 벤치마킹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뜻이 숨어 있다.

이번 한·베트남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10대 과제 중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을 인근 개발도상국가와 공유하고자' 하는 구상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10월 20~25일 베트남과 캄보디아,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등 동남아 3국을 방문한다.

'경제 한류'를 확산시키고 지난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밝힌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본격 가동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인 가운데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지인 베트남에 유독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왜일까. 이는 베트남이 우리나라 국제결혼이민자(2009년 3월 현재·행정안전부 자료) 가운데 중국 조선족(38.6퍼센트), 중국(23.3퍼센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나라(14.6퍼센트)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6월 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개최

결혼이민 또는 이주노동자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된 많은 다문화인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도 제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Rex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글로벌화라는 과제를 눈앞에 둔 한국에게 다문화는 새로운 경쟁력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1백만명 시대를 맞아 다른 외양과 언어, 문화는
우리 사회 안팎에 새로운 생기와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와 다른 하나를 만나 둘이 아니라 셋이 되는 다문화 시너지 현장을 가보자.

동아DB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희망이다.

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도 아세안 주간(5월 24일~6월 2일) 행사의 하나로 모범 다문화가정 초청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외국인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의 2퍼센트에 이르고, 전체 결혼 10건 중 1건이 국제결혼인 시대, 다문화는 외국과 든든한 가교를 놓는 '새로운 자산' 인 셈이다.

결혼이민 또는 이주노동자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된 많은 다문화인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도 제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에 사는 필리핀 이주여성 락켈 카르피오(39) 씨는 올해 초부터 충남교육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의 업무는 영어 원어민강사 코디네이터 역할이다. 우리나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원어민 강사들을 돕는 일을 한다.

필리핀의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그는 1995년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어서 마냥 두렵기만 했는데, 하나둘씩 정을 붙이며 살다 보니 이젠 한국이 내 나라 같다"고 말한다.

락켈 씨는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에 고령층 인구의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이면 19세 미만 농가 인구에서 다문화자녀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다문화가정이 없는 우리 농촌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STX조선해양에서 일하는 3백5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인 함담벡(32) 씨는 지난해 STX 모범 사원상을 수상한 우수 사원이다. 함 씨가 일하는 부서는 취부파트. 취부는 철판과 철판 자리를 정교하게 맞춰놓고 용접하는 것으로 높은 집중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에 온 지 4년 된 그는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한다. 함 씨 형제는 앞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 자동차를 수입해서 파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희망을 찾는 이들의 사연은 아리랑TV가 제작한 다문화 성공스토리 프로그램 '마이 코리아, 마이 코리안즈(My Korea, My Koreans)'에 담겨 지난 9월 방영됐다.

"문화 다양성이 국제화시대 경쟁력 될 것"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져 급격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다문화가정은 출산의 희망이 되고 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명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국제결혼가정의 초중고생 자녀 현황을 보면 △2005년 6

동아DB

몽골의 전통축제인 나담축제가 열린 7월 12일 서울 광진중학교에서 몽골인 연주자들이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동아DB

송편을 빚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있다. 이 미소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다.

천1백21명 △2006년 7천9백98명(+30.6퍼센트) △2007년 1만3천4백45명(+68.1퍼센트) △2008년 1만8천7백78명(+39.6퍼센트)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6세 미만 아동은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 10만3천4백84명(2009년 5월 기준·행정안전부 자료) 중 60퍼센트(6만1천7백명)에 달해 최근 출산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유제품에 다국어 설명서 표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관련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수유전문 브랜드 '유피스'는 지난 8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 시연회를 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이날 모유 수유 전문가에게 유방 관리, 젖 먹이는 자세 등을 배웠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일부 분유제품에는 캔 용기 포장에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회사 홈페이지가 표기돼 출시되고 있다. 일동후디스, 파스퇴르유업도 기존 제품이 소진되는 대로 제품 용기 안팎에 다국어 표기를 병용하게 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물에 분유를 얼마나 타야 하는지 알려주는 한글 설명서를 읽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긴 변화다.

지난 7월 12일 서울 광진구 광장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이색적인 몽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몽골인들의 가장 큰 전통축제인 '나담축제'가 열렸다. '나담'이란 '게임, 축제, 경기'라는 뜻의 몽골어다.

다문화가정의 높은 이혼율, 언어와 문화 적응의 문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부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동아DB

광진구의 나담축제는 2001년 광진구가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와 자매결연한 이후 매년 개최돼왔다. 이번 나담축제에서는 몽골 전통씨름인 '부흐'와 '활쏘기', 양과 염소의 복숭아뼈인 샤가이를 던져 표적을 맞추는 '샤가이하르와' 등 몽골 문화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나담축제와 같은 다문화축제를 통해 이국 문화를 맛볼 수 있고, 서울에서는 마포구 연남동을 비롯해 역삼, 서래, 이촌, 한남까지 외국인 동장 시대가, 농촌 곳곳에서는 다문화부녀회장 시대가 열렸다. 지난 7월 29일 임명된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은 1986년 한국에 귀화한 독일 출신 이참(55) 씨다.

재한 외국인 포용하고 지원해야

지난 5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는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주한 필리핀·몽골 대사 등 주요 인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과 외국인 1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화시대에는 문화의 다양성이 곧 경쟁력이자 국가 발전의 동력입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대독한 총리 명의의 기념사는 우리 국민은 물론 재한 외국인 모두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코리아로 발전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 축으로 활약 중이다.

물론 다문화가정의 높은 이혼율, 언어와 문화 적응의 문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부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들이 함께 행복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원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다문화가정 정착 정부가 돕는다
결혼 → 육아 → 교육 주기별 지원망 구축

나와 다른 외모, 우리와 다른 문화가 한데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다문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동아DB

광주 광역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온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전통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1 3년 전 베트남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느구엔티응아(32) 씨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했다. 낯설고 물선 한국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역시 말이었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집 인근의 경기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 훈련을 받았고, 지난 4월에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통역 자원봉사까지 할 정도로 한국말이 유창해졌다. "한국어를 잘하게 돼 통역봉사를 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며 그는 자부심에 뿌듯해했다.

#2 2007년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 로리타 권(35) 씨는 화상 채팅을 통한 4개월간의 열애 끝에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으로 시집왔지만 처음에는 "예" "아니오" 정도밖에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다. 그러던 그가 요즘은 시장에서 흥정으로 물건 값을 깎을 만큼 우리말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결혼 후 몇 달 뒤부터 한국디지털대학교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을 배운 덕분이다. 그는 이제 한글 요리책을 읽고 오징어순대까지 만드는 요리 실력을 갖추게 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1백만명 시대를 맞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문화인들에게 가장 큰 고충은 역시 언어다. 일단 말이 통하면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은 해결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언어(59.1퍼센트)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제제도(12.2퍼센트), 문화(8.4퍼센트), 자녀교육(5.8퍼센

트), 외국인에 대한 차별(4.3퍼센트) 순이었다.

다문화인들이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의 '뿌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80곳이 운영 중이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 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 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는 '원스톱 다문화 서비스' 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그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애 주기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생애 주기별 지원대책은 △결혼 준비기 △가족 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가족 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 시 등 모두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복지와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 법무부(외국인정책 총괄), 노동부(외국인노동자 정책), 교육과학기술부(자녀 학교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 교재 개발) 등 5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애 주기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9월 28일 경기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열린 한가위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자신의 어머니 나라 전통복장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아DB

결혼 준비기 결혼 중개업체들의 탈법을 막고,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중개업체와 이용자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결혼 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규정을 신설해 결혼 당사자의 건강 상태나 범법 행위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 형성기 정부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과 생활안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

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다각화하고 문화이해 교육, 가족통합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해 실시된다. 지난해 1월 협약을 맺은 한국디지털대학교와 연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방송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가 유창한 결혼이민자(1백60명 · 11개 언어)를 활용해 통 ·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다국어판 생활 · 정책정보 매거진 'Rainbow+' 보급을 8개 언어, 연 4회, 회당 7만 부로 늘린다.

자녀 양육기 다문화가정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와 영 · 유아를 위한 영양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보건소가 지난해 전국 1백53개에서 올해 2백53개로 늘어났다. 또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 가정방문 지도를 실시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지도사 80여 명이 파견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만 6세 이하 영 · 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 교육기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학습발달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학습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한국어 능력이나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올해 58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7월에는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도 수립됐다. 국제

조영철 기자

지난 4월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한 느구엔티응아(맨 앞 성인) 씨와 다문화 통역 자원봉사자들.

결혼 가정과 이주 노동자 자녀들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6년 9천3백89명→2007년 1만4천6백54명→2008년 2만1백80명 등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 강사를 육성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이 밖에 빈곤으로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의 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보건복지 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지원 인프라도 강화된다.

가족 역량 강화기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여성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11억원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11개 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농촌 거주 비중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국 2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의 농사문화, 농업 · 농촌 용어, 식용작물 구분 등 농촌생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 일반과 기초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기반 교육도 하고 있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 자조 모임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가족 해체 시 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도 마련돼 있다.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또 가족해체라는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 피해 상담 ·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센터' 운영을 확대했다.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백65일 24시간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센터'의 권역별 지역센터는 올 들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별로 한 곳씩 설치되어 서울센터를 포함, 전국에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은 경찰, 병원, 법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국의 이주여성 상담원이 현장에서 직접 8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상담을 지원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및 상담 Tel **1577-5432**
홈페이지 tmfc.familynet.or.kr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Tel **1577-1366**

한·베트남어 핸드북·다국어 동화책 등

다문화 포용 한걸음 한걸음…

'다르지만 같은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다문화인들이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노력이 작게는 개인,
크게는 기업으로 번지며 우리 사회는 지금 행복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베트남 신부들이 시집온 우리나라에 변변한 베트남어 사전 하나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집계한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에서 국제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조선족(38.6퍼센트), 중국(23.3퍼센트), 베트남(14.6퍼센트), 필리핀(5.4퍼센트), 일본(4.4퍼센트), 대만(2.6퍼센트) 순이었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조선족이나 중국어, 일본어 사전이 흔한 중국,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비중이 높은 출신국이 베트남이지만 여태껏 베트남어 사전이 국내에 없었다. 이런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돼 〈한국어·베트남어 실용 핸드북(전 2권)〉을 펴냈다.

"씬 짜오 바 아=안녕하세요, 할머니!"

"또이 당 쫑 꼰=아기를 돌보고 있어요."

"또이 비 다우 봉. 또이 디 덴 콰 노이=배가 아파요. 내과에 갑니다."

한국·베트남어, 베트남·한국어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된 이 핸드북은 양국의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고 가족 간 호칭, 식사예절, 교통정보와 더불어 경찰서·우체국·은행·의료기관 이용하기 등 생활정보, 상황별 생활회화, 필수단어장, 각종 전화번호까지 고루 담았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 GS칼텍스, 삼성 등이 후원하고 동아일보사가 제작을 맡은 이 핸드북은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전만길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장에게 전달됐다. 이 사전은 곧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각지의 베트남 이주여성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조영철 기자

10월 13일 서울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어·베트남어 실용핸드북 전달식.
왼쪽부터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명영식 GS 칼텍스 사장, 베트남 결혼이주민 빙티라이 씨, 전만길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장.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2호점 개관

전 회장은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이 핸드북을 기다렸다"며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들뿐 아니라 지원센터 상담원들에게도 나날이 늘고 있는 베트남 이주여성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러한 책이 절실했다"며 환영했다.

이 핸드북은 10월 20~25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3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길에 갖고 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당국자들에게 국내의 '행복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노력을 설명하며 이 핸드북을 선물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도 최근 잇따라 문을 열었다. STX그룹 등이 후원하고 지역 시민단체인 푸른시민연대가 힘을 모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1호점'이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개관했다. STX그룹은 지난 9월 2호점인 창원관을 경남 창원시에 열었다.

'다양한 문화가 모두 모인다'는 뜻을 지닌 '모두'는 다국어 책이 있는 도서관이다. 1호점의 경우 문을 들어서자마자 다문화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이 직접 쓴 글씨로 다국어를 만날 수 있고 12개 국어의 다양한 문자와 책을 만날 수 있다. 2호점에는 7개국 6천여 권의 도서와 동영상 자료가 마련돼 있다.

사비로 10만 권의 다문화 동화책을 펴내는 사람도 있다. 여원미디어 김동휘(54) 대표는 사비 약 2억원을 들여 6개 국어로 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한국어·베트남어 실용핸드북. 2권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책 10만 권을 제작해 다문화가정 1만 가구에 무료 배포하기로 하고 현재 〈흥부와 놀부〉 등 전래동화와 〈훈민정음〉 〈김치는 안 먹어〉 등 전통문화서 총 10권을 번역하고 있다. 번역 작업이 끝나는 대로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로 제작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가정부터 10권씩 나눠줄 예정이다.

김 대표는 "다문화가정은 부모 한쪽이 우리 문화를 제대로 모르는 바람에 그 자녀들마저 우리 문화를 깊이 알기가 어렵고, 그것이 따돌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책을 다문화어로 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비 들여 다국어 전래동화책 무료 배포

기업들의 관심도 다문화로 향하고 있다. 삼성사회봉사단(사장 이순동)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29일 경기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50여 가족을 초청해 해당 나라 음식과 문화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안산시와 함께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전통문화 공연과 음식 체험 등 다양한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지구촌사랑나눔 다문화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정 가족들을 초청해 송편을 빚고 다과회를 가졌다.

정경택 기자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의 인형극. 다문화가정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24일 고객 지원 행사인 '소망스토리 이벤트'의 하나로 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코리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소망스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도 지난 7월 전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0곳에서 열린 '함께하는 세상 희망캠프'를 후원했다. 이 캠프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심리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행사였다.

LG는 11월부터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장점인 '두 가지 언어와 두 가지 문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LG는 이중언어와 과학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길 희망하는 전국 다문화가정 청소년 약 70명을 매년 선발해 2년 동안 무료로 한국외국어대와 KAIST 교수진이 직접 지도하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기업인 (주)대교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무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예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가수 임창정 씨는 지난해 5월 21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책 낭독회'에 참석했다. 가수 윤미래 씨와 드렁큰타이거도 지난해에 7개월 동안 다문화청소년 모임인 무지개문화탐험대 활동을 지원했다. 이 밖에 서울대, 성균관대 등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멘터가 되어주는 등 따뜻한 다문화사회로 향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큰 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지구촌 최대 우주행사 '2009 대전 국제우주대회'

"와~ 진짜 달나라 암석이네"

우주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지구촌 최대 우주행사가 대전에서 열렸다.
10월 12일부터 5일간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됐고 9일부터 25일까지는 일반인들을 위한 우주축제가 열린다. '우주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전 국제우주대회(IAC)' 현장을 살펴봤다.

국제우주대회(IAC)가 10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우주 선진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향후 우주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첨단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대회 기간 내내 우주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주'를 주제로 국제협력, 우주산업, 기후변화, 우주탐사, 우주평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우주 전문가들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일반인도 우주를 배우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축제 형식으로 기획됐다는 게 특징이다. IAC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데다 달 착륙 40주년, 세계 천문의 해, 대전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기 때문이다.

우주인 체험관에는 이소연 우주인이 훈련받았던 과정을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우주 상상 원정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제우주대회는 크게 학술회의(12~16일), 우주기술전시회(12~16일), 우주축제(9~25일)로 진행됐다. 일반인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의엔 참여할 수 없지만 대신 우주기술전시회와 우주축제를 즐길 수 있어 우주 관련 행사를 만끽할 수 있었다.

우주 전문가 학술회의부터 전시회 · 축제까지

12일 첫날에는 개막식과 환영 행사가 펼쳐졌다. 손범수 아나운서와 이소연 우주인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태양계의 행성을 테마로 한 마임과 디지털 예술작품이 선보였다. 이어 베른트 포이에른바허 국제우주연맹(IAF) 회장과 IAC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박성효 대전시장이 대회 선언 및 환영사로 개막을 선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제 달 탐사프로그램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녁에는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공연이 곁들여진 환영 행사가 열렸다. 대전 한빛탑 앞 광장에 모인 외국인들은 뷔페식으로 차려진 한식과 양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눴고, 한국 전통 민속놀이인 투호와 널뛰기를 즐겼다. 한복 입기와 떡메 치기도 외국인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대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였다. 저녁 9시 한빛탑 광장 하늘에는 우주라는 주제를 다양하게 형상화한 '우주 불꽃쇼'가 펼쳐졌다. IAC 조직위원회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준비했다"고 귀띔했다.

다음 날에는 대전컨벤션센터 인근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에서 국제우주법 모의법정 대회 준결승전이 열렸다.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우승한 인도국립대 법대 학생 팀과 유럽지역 우승팀인 영국 스타드클라이드대 팀이 우주에서 벌어진 국제분쟁을 두고 원고 측과 피고 측으로 나뉘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관석 중앙에 앉아 의장직을 수행한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양 팀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었지만 인도 팀의 논거가 약간 우세했다"며 "좋은 설전을 봤다"고 말했다. 인도국립대 법대 학생 팀은 15일 열린 결승전에서 미국 조지타운대 팀을 꺾고 우승했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세계 1백45개 우주 기관과 기업들이 참가한 우주기술전시회가 열렸다. 3개 전시관을 가득 메운 이번 전시회는 국가나 기업 간 정보와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대회 첫날과 둘째 날은 우주 관련 전문가들에게만 개방됐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됐다.

제1전시관에는 세계 우주청과 연구기관의 우주개발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고, 제2전시관에는 산업, 학교, 연구원이 합심해 세운 항공우주클러스터의 교육과 연구 성과가 선보였다. 제3전시관에서는 첨단 기술과 우주응용 기술을 볼 수 있었다.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는 일반인을 위해 9일부터 시작한 우주축제가 한창이었다. 공원 내 첨단과학관에서는 NASA가 '달 착륙 40주년 주제관'을 대규모로 열었고, 대전시는 우주인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우주인 체험관'을 세웠다.

일반인 참여 가능한 축제는 25일까지 계속

NASA는 주제관에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과 착륙선, 월면 자동차를 본뜬 정교한 모형을 전시했고 실제 달에서 가져온 달 암석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NASA가 50년 동안 진행해온 달과 화성을 비롯한 우주 탐사활동 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프로젝트를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우주인 체험관에는 우리나라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 우주센터에서 받았던 훈련과정을 일반인이 따라할 수 있는 '우주 상상 원정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관람객은 체력 훈련, 중력가속도를 극복하는 훈련, 무중력 훈련 등 15개 코스를 통과해야 하며 마지막에는 8인승 가상 우주여행선을 타고 광속 우주여행을 떠나게 된다. 모든 훈련을 마치면 우주특별시에 도착해 '우주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1백50명의 우주 꿈나무들은 찰스 볼든 NASA 국장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6개국 우주청장과 우주인 6명에게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또 이소연 우주인과 러시아 우주인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며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교육과 접목된 프로그램도 많았다.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1백50명의 우주 꿈나무들은 12일과 13일에 걸쳐 찰스 볼든 NASA 국장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6개국 우주청장과 우주인 6명에게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또 세계 유명 우주기업의 대표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류의 우주개발 역사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고, 이소연 우주인과 러시아 우주인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며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국제우주대회는 16일 아시아 태평양지역 우주개발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대전 선언문'을 낭독하며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한 우주축제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즐기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우주대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우주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G

글 · 전동혁(동아사이언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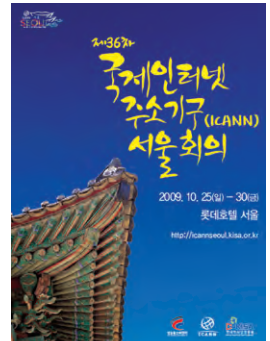
IAC 제공

IAC 제공

국제우주대회에는 우주 전문가들을 비롯해 우주 꿈나무 청소년들까지 함께 모여 축제의 장을 열었다.

전 세계 인터넷 주소 관리는 누가?

제36차 국제인터넷주소기구 회의 서울 개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르는 정보까지 속속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세상. 하지만 인터넷을 할 때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인터넷 주소다. IP라고 불리는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연례회의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편지를 보낼 때 주소를 모르면 편지를 부칠 수 없듯이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다. IP(Internet Protocol)라고 불리는 인터넷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통신망과 그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IP 주소는 4개의 숫자 조합을 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주소창에 '202.30.50.88' 이라는 IP 주소를 입력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하지만 IP 주소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다. 그래서 'icannseoul.kisa.or.kr' 처럼 기억하기 쉬운 문자로 표현된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곳이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다. 1998년 설립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곳은 IP주소를 할당하고, 인터넷 도메인(.com, .net 등)을 관리하며, 루트서버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전 세계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 민간기구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난 6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35차 국제인터넷주소기구 회의 모습. 회의에서는 주로 IP주소, 도메인 등 글로벌 인터넷 주소의 생성과 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인터넷 주소 체계 국제적 흐름 파악하는 계기 될 것"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가 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의 조사위원회 IETF와 인터넷 기술자 연합체인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등 인터넷 관련 기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인터넷 분야 전문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는 글로벌 인터넷 주소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매년 3회씩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5개 대륙을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10월 25~30일 열리는 제36차 연례회의는 서울에선 처음 열리는 대회다. 이 회의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까지 1백 개국 1천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주로 IP 주소, 도메인 등 글로벌 인터넷 주소 자원의 생성과 관리에 관한 정책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국어 국가 최상위 도메인(방통위.한국) 등과 자국어 국가일반 최상위 도메인(삼성.컴) 등의 도입정책이 화두가 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일반 최상위 도메인(.eco, .city) 도입 등 기타 이슈 관련 세부적인 논의도 이뤄진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제36차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서울 연례회의를 통해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체계의 변경, 인터넷 주소 정책방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제인터넷주소기구 **sel.icann.org**(영문) **icannseoul.kisa.or.kr**(한글)

4대강 살리기
제 26 화
전남 해남군 고천암
글·이연수 그림·이호

…
먹황새
천연기념물 제200호
황새목 황새과
학명:Ciconia nigra

흐미,
열받아부러~
뭣 땜시
그라요?
가창오리
기러기목 오리과
학명:Anas formosa
휙

4대강 살리기 사업 허는디 영산강에는
2조6천억 원밖에 안 들이고 낙동강에는
9조9천억 원 넘게 들인다 안 허냐!
왐마?
그것이
참말이다요?

이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랑께!

아따 형님, 유역면적당 사업비는
영산강이 제일 많다는디요?
좀 찬찬히
읽어보시잖고…

영산강은 유역면적당 7억6천3백,
낙동강은 4억천9백이라고 하는디?
악!
어디!
퉁

하천 1km 당 사업비도
낙동강보다는 적지만 한강이나
금강에 비하면 세 배가 넘어불고….
낙동강이 워낙 길잖소, 형님.
그러네?

그라문 얼른 럭셔리해진
영산강으로 이사해야 쓰겄네!

형님! 쪼까 기다렸다 가시요.
완공은 2012년이랑께요, 잉
아따,
성질 급하시긴…
푸드득

'2009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데이터베이스로 예측하는 미래

2009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가 10월 29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 '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는 그동안 국내외 유명 석학과 전문가를 초빙, 다양한 데이터 관리 전략을 소개해 정보기술(IT)과 비즈니스 분야의 핵심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기술은 기업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보다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활용 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 경영 기술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와 해법 위주로 소개되기 때문에 IT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인, 학계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 참가자는 지난해보다 10퍼센트 정도 늘어난 1천1백명 선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데이터 품질 혁신과 관리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빙한다.

지난해 국제데이터관리 학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던 세계적인 권위자 존 탤버트 미국 아칸소대학 교수, 데이터베이스 관리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엠바카데로(Embarcadero)사의 데이터베이스 부문 솔루션 책임자 그레그 네르포니, 다국적 데이터 통합 전문회사 인포매티카(Informatica)의 솔루션 마케팅 디렉터 피터 쿠, IT컨설팅 전문업체인 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데이터베이스 보안 문제, 데이터베이스 혁신 전략, 데이터 통합 플랫폼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적 석학 초빙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 주는 강연도

오전의 주제 발표에 이어 오후에는 '정보화와 데이터 이슈' '데이터 혁신 성공 전략' '데이터 품질의 뉴 트렌드'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15개 강연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한국 IBM,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금융감독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며, 이들 기업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방법, 기술 및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9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는 글로벌 전문가들을 초빙,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전략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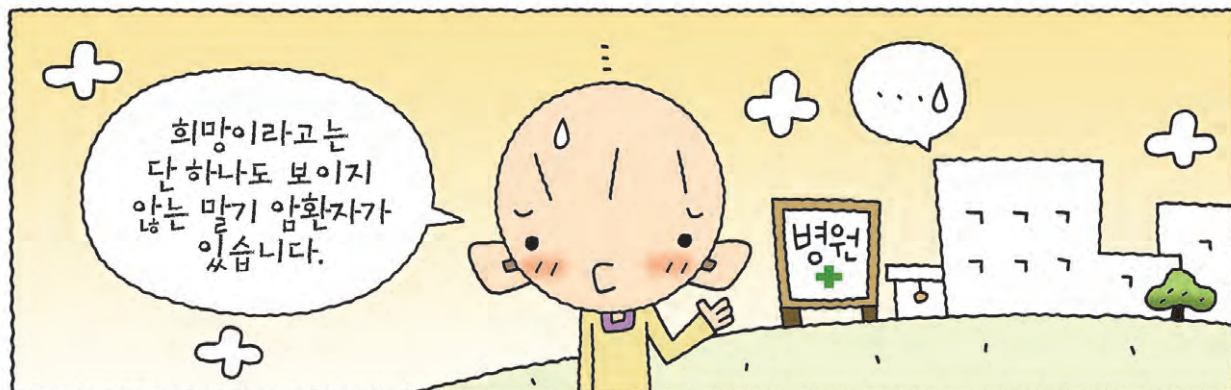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의 데이터 품질관리 모범 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수여하는 '2009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시상식과 향후 국내 데이터베이스 관련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데이터베이스산업협의회'의 발대식을 함께 치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응수 원장은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는 IT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참가등록은 10월 27일까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G

글 · 최은숙 기자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Tel 02-3708-5412 dbq.or.kr/conference

사랑, 그 무한함에 대하여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랑은 그것이 희생일 때 이외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에 적합하지 않다.
– 로망 롤랑(프랑스 소설가)

도심 속 궁궐에도… "오메~ 단풍 들것네"

서울 시내 창덕궁 후원 · 광릉 등 10월 하순 절정

창덕궁 후원과 광릉은 10월 20일쯤이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한다. 올가을에는 궁궐과 왕릉으로 단풍여행을 떠나보자.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단풍을 보기 위해 설악산이나 내장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올가을엔 차 밀리고 인파에 치이는 단풍관광 대신 서울 시내 궁궐이나 가까운 왕릉을 찾아가보자. 조용하면서도 운치 있게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문화재청은 궁궐과 왕릉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 시간표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올해 단풍이 10월 20일쯤 창덕궁 후원과 광릉을 물들이기 시작해 11월 하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숲 전체의 80퍼센트 가량 단풍이 드는 절정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9월과 10월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예년보다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궐과 왕릉은 나무와 숲이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단풍이 아름답지만 특히 색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곳으로는 창덕궁 후원의 단풍나무 숲과 덕수궁 석조전 주변의 은행나무 숲, 창경궁 향원지 주변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숲, 창경궁 춘당지 주변 버드나무와 느티나무 숲, 종묘 정전 주변 참나무 숲을 꼽을 수 있다.

덕수궁 · 선릉은 야간도 개방… 다양한 문화행사도

또 왕릉 가운데는 조선 태조의 건원릉을 비롯해 9개의 왕릉이 있는 동구릉의 건원릉 억새와 어우러진 소나무 숲, 숙종의 명릉 등 5개 왕릉이 있는 서오릉의 창릉 산책로, 사도세자의 융릉과 정조의 건릉에 있는 참나무 숲, 세종대왕이 모셔진 영릉의 서어나무 숲, 현충사 진입로의 은행나무 숲이 아름답다.

특히 덕수궁과 선릉은 야간에도 개방되어 단풍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각 궁궐과 왕릉 및 유적관리소가 마련한 낙엽 밟기, 야생화 사진전, 백일장 등 문화행사도 마련돼 있다.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나명하 사무관은 "가을이면 궁궐과 왕릉마다 단풍 절정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람 편의를 위해 단풍 시간표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봄에는 '궁궐과 왕릉의 봄꽃 시간표'도 발표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문화재청 www.cha.go.kr

창경궁 북행각 일원의 단풍이 한복 입은 어린이들과 어울려 더욱 아름답다.

대상지(관리소별)	단풍 절정기	단풍길	안내 전화
창덕궁	10.20~11.25	후원 일대	02-762-9513
창경궁	11.2~21	춘당지 주변 관람로 과학의 문 일대~온실 주변	02-762-9515
덕수궁	10.30~11.20	덕수궁 석조전 뒤편 산책로	02-771-9952
종묘	11.1~25	관람로 및 종묘 일대	02-765-0195
정릉	10.25~11.15	정릉 정문~장수천(약수터)	02-914-5133
서오릉	10.25~11.15	서오릉 경내	02-359-0090
서삼릉	10.25~11.15	서삼릉 경내	031-962-6009
광릉	10.20~25	광릉 정문~정자각	031-527-7105
동구릉	10.28~11.16	정문~목릉	031-563-2909
태릉	10.25~11.20	태릉 관람지역	02-972-0370
홍유릉	10.31~11.15	홍유릉 정문~영원 산책로	031-592-0821
사릉	10.17~25	사릉 정문~양묘장 내 자연학습장	031-573-8124
헌릉	10.27~11.08	정문~헌릉 정자각 앞	02-445-0347
선릉	10.25~11.20	선릉 경내	02-568-1291
융릉	10.25~11.20	융릉 · 건릉 관람로 주변	031-222-0142
파주 삼릉	10.25~11.05	파주 삼릉 관람로	031-941-4208
장릉	10.27~11. 15	장릉 관람로 및 산책로 주변	031-984-2897
의릉 영휘원	10.25~11.20	의릉 경내 진입로 및 주차장	02-964-0579
세종대왕릉	10.28~11.10	세종릉~효종릉 간 산책로 효종대왕릉 관람로	031-885-3123

새롭게 시작하는

親서민 금융 프로젝트 **미소금융**

2009년 12월, 서민을 위한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자활의지가 있으면 희망을 빌려 드리는 미소금융을 기대하세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 **미소금융이란?** 서민층의 재활을 돕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일환으로써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민금융 프로젝트입니다

종 합 안 내 센 터
1600-5500

서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
미소금융중앙재단

경남 통영 사량도

사람과 사람 사이… 섬과 섬 사이…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은 바다의 낭만과 정취를 진하게 느끼고 싶을 때 섬을 찾는다. 망망대해에 일엽편주처럼 떠 있는 절해고도에서는 바다가 유난히 넓고 위대하게 느껴진다. 심연(深淵) 같은 바다에 둘러싸인 섬은 외롭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초라하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조차 불분명해진다. 소우주라는 인간도 대자연의 미미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섬에서는 누구나 고독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남 통영의 사량도에서는 인간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인다. 그 섬에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껴진다. 발아래 펼쳐진 세상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천연전망대가 곳곳마다 산재한 덕분이다.

사량도는 남해도와 통영 미륵도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고성군의 자란만과 마주본다. '사량도'라고 하면 흔히들 한 개의 섬으로 오해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비 3백~4백 미터가량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윗섬과 아랫섬으로 나뉘어 있다. 두 섬 사이의 바다는 마치 강처럼 좁다. 그래서 '동강(桐江)'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오동나무처럼 물빛이 푸르고, 강처럼 폭이 좁다는 뜻이다. 두 섬 사이의 바다가 마치 뱀

옥녀봉과 가마봉 사이의 능선 길에서 바다 풍광을 카메라에 담는 등산객들. 오른쪽 멀리 두미도와 욕지도가 보인다.

옥녀봉 직전 능선길에서 바라본 금평항과 진촌마을의 꼭두새벽 풍경.

처럼 가늘고 구불구불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사량도(蛇梁島)라고 불리게 됐다는 말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섬의 형태가 뱀을 닮은 데다 뱀도 많아 사량도라 명명됐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사량도는 바다보다 산이 좋다. 두 섬 모두가 옹골찬 산세를 자랑한다. 윗섬에는 옥녀봉(2백61미터)에서 가마봉(3백1미터)과 불모산(4백미터)을 거쳐 지리산(3백98미터)까지 이어지는 암릉(巖稜)이 우뚝하다. (사량도 지리산은 지리산이 보인다 하여 지이망산(智異望山)으로 불리다가 그 말이 줄어 지리산이 되었다. 국립공원 지리산과 구별하기 위해 통상 사량도 지리산이라 불린다.) 아랫섬에도 칠현봉(3백45미터), 망봉(3백48미터), 용두봉(2백25미터) 등으로 연결된 산줄기가 장대하다.

그중 윗섬에는 면사무소가 위치한 진촌마을을 출발해 옥녀봉, 연지봉, 가마봉, 불모산, 지리산 등의 봉우리를 두루 거쳐 돈지마을로 내려서는 종주코스도 개설돼 있다. 이 코스는 내륙의 어느 명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산행의 묘미가 다채로운 명품 코스로 유명하다. 주말과 휴일마다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이 섬을 찾는 까닭도 십중팔구는 산행에 있다.

사량도 종주산행에 나선 이들은 대개 돈지마을에서 시작해 진촌마을로 하산한다. 산행을 마친 뒤에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금평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주변 식당에서 때늦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심신의 피로가 쌓인 산행 후반부에 고난도의 불모산~옥녀봉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산행 묘미 다채로운 산세… 내륙 명산 부럽지 않아

그러므로 진촌마을을 출발해 체력이 좋은 상태에서 옥녀봉~불모산 사이의 험로 구간을 통과한 다음, 비교적 평이하고 안전한 불모산~지리산~돈지마을 구간을 산행의 후반부에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다. 더욱이 진촌마을 위쪽의 옥녀봉은 동쪽으로 시야가 훤해서 해돋이 감상 포인트로도 제격이다.

일출 예정시각 1시간 전쯤 진촌마을을 출발하면 옥녀봉 정상에서 한려수도의 절승을 무대로 펼쳐지는 해돋이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진촌마을에서 옥녀봉으로 오르는 길은 시작부터 경사가 만만치 않다. 산행을 시작한 지 20~30분쯤만 지나면 답답한 숲길을 벗어나 시야가 탁 트인 능선 길에 올라선다. 관공서와 민가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는 진촌마을이 발아래에 놓이고, 호수처럼 고요한 바다가 사방으로 펼쳐진다. 다급했던 발걸음과 마음을 느긋하게 만드는 풍경이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설악산 공룡능선처럼 날카로운 암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가 없다. 가파른 철 계단을 지나면 옥녀봉 정상이고, 다시 날카로운 능선을 얼마쯤 걷다가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서면 연지봉(2백95미터) 정상이다.

옥녀봉에서 가마봉으로 이어지는 암릉은 황홀하지만 아찔하다. 외줄을 타고 깎아지른 암벽을 오르내리거나 거의 수직에

1 연지봉 직전의 가파른 암벽을 가로질러 최근 설치된 나무데크 등산로.

2 연지봉의 서쪽 암벽에 설치된 줄사다리를 손발로 기어오르는 등산객들.

3 옥동마을 앞 바다낚시터에서 고등어를 낚은 관광객.

4 가마봉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바로 아래에 옥동마을이 있고, 호수 같은 동강 저편에는 아랫섬과 두미도, 욕지도가 보인다.

사량도는 차를 타고 한 바퀴 둘러보기에도 좋다. 섬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해안도로가 나 있어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또한 남해안에서도 소문난 바다낚시터 가운데 하나다.

가까운 철 계단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오르기가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는 우회로가 개설돼 있으므로 무리해서 외줄이나 줄사다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신의 평정을 되찾은 뒤에 바라보는 풍경은 황홀경 그 자체다.

양쪽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떠 있는 남해바다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바다와 바다 사이에는 공룡의 이빨처럼 뾰족뾰족한 산줄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올랐다. 바다 빛깔이 어찌나 푸른지 날씨 쾌청한 날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 쪽빛바다와 황금들녘에 에워싸인 섬마을 풍경도 더없이 정겹다.

가마봉 정상에서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던 이종원(44) 씨는 “이래서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꼭 한번 사량도에 가보라’고 권하는가 봅니다. 저도 여러 섬들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이곳처럼 산과 바다의 조화가 아름다운 섬은 달리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에서부터 천리 길을 달려왔다는 이 씨는 “아마 섬을 떠나자마자 그리워져서 금세 다시 찾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섬 떠나자마자 그리워져 곧 다시 찾게 될 것”

가마봉을 뒤로하고 톱날처럼 날카로운 톱바위를 지나면 이내 사량도의 최고봉인 불모산 정상에 당도한다. 불모산 정상의 달바위에서는 남해 금산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 보이고, 명산 지리산도 한결 또렷하게 다가온다. 불모산의 서쪽에 이웃한 봉우리도 지리산이다. 원래는 ‘지리산을 바라본다’는 뜻의 지리망산(智異望山)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지리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봉우리의 높이나 전체 규모는 진짜 지리산에 감히 견줄 수도 없지만, 그 탁월한 조망만큼은 해발 1천9백15미터의 지리산 천왕봉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장쾌하다. 지리산에서 돈지마을로 내려서는 길은 저절로 휘파람이 나올 정도로 편안하다. 마을에 도착하니 갑자기 긴장이 풀리고 온몸이 나른해진다. 그래도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으로 가슴은 뿌듯하다.

사량도는 차를 타고 한 바퀴 둘러보기에도 좋다. 특히 윗섬에는 섬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해안도로가 나 있고, 이 길이 지나는 바닷가 곳곳에는 아담한 갯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서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더욱이 면사무소 인근의 대항마을에는 고운 모래가 깔린 대항해수욕장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산행 후에 해수욕을 즐길 수도 있다.

사량도는 남해안에서도 소문난 바다낚시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바다가 깨끗하고 수중 암초가 많아서 볼락, 노래미, 참돔, 광어, 감성돔,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많이 잡힌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농어와 삼치, 찬바람이 부는 11, 12월에는 볼락과 도다리 등이 잘 잡힌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윗섬의 진촌마을을 출발해 옥녀봉, 연지봉, 가마봉, 불모산, 지리산 등의 봉우리를 두루 거쳐 돈지마을로 내려서는 종주산행 코스는 총길이가 무려 8킬로미터에 이른다.
예상 소요시간은 대개 4시간 정도로 잡지만, 실제로 충분히 휴식하면서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5, 6시간쯤 걸리게 마련이다. 노약자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비, 눈이 오거나 안개 자욱한 날에는 무리한 산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암벽이 많으므로 미끄럼방지창(일명 ‘비브람창’)이 깔린 등산화를 착용하고, 반드시 고칼로리의 영양식과 생수를 챙겨야 한다.
종주코스 중간에는 옥동, 내지, 대항마을 등으로 곧장 내려서는 하산길이 몇 갈래 있으므로 체력이 소진됐거나 날씨가 안 좋아질 때는 미련없이 하산한다.

진촌마을 쪽의 옥녀봉 등산로 초입에 사량수협이 운영하는 사량섬유스호스텔(055-641-8247)이 있다. 숙박료는 객실의 크기에 따라 3만~12만원선이다.
이 밖에 금평항과 대항해수욕장 주변에 선빌리지(010-5095-4739), 로시난테하우스(010-6785-6001), 사계절민박(055-642-4755), 은행나무민박(055-641-7725), 대나무집민박(010-9304-4639) 등의 숙박업소가 있다.

맛집

금평항 주변에 신형제식당(055-643-3876), 미화식당(055-648-7006), 부일횟집(055-649-6076) 등을 비롯한 횟집과 식당이 여럿 있다.
메뉴는 자연산 생선회, 회덮밥, 장어탕, 매운탕 등이 주종을 이룬다. 맛과 가격도 서로 엇비슷한 편이다.

▲ 신형제식당의 모듬회.

가는 길

승용차 | 중부(통영대전)고속도로 북통영 나들목 ➡ 노산삼거리(14번 국도·고성 방면) ➡ 도산삼거리(좌회전·77번 국도) ➡ 가오치항(무료주차장 있음)
배편 | 통영시 도산면 가오치항(055-647-0147)에서는 사량도의 덕동항(아랫섬, 055-649-0149)을 거쳐 금평항(윗섬, 055-643-7939)으로 가는 사량수협의 사량호가 매일 5회(07:30, 09:30, 12:00, 14:00, 16:10) 출항한다. 덕동항까지는 50분, 금평항까지는 1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고성군 하일면 용암포선착장(055-673-0529)에서도 대경해운의 카페리인 뉴다리호가 07:30~16:20 사이에 하루 7회(내지항 3회, 금평항 4회) 왕복 운항한다. 소요 시간은 내지항 15분, 금평항(055-641-0529) 30~40분.
섬 내 교통 | 사량도(윗섬)의 대중교통편은 마을버스(010-5166-8684)가 유일하다. 금평 ⬅➡ 돈지·내지 간을 평일에는 대체로 배 시간에 맞춰 운행하지만, 이용객이 많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수시로 운행한다.
대여료(1시간에 2만원)가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면사무소 앞에는 2인승 카트 대여점(010-6397-5620)도 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추천하는 〈히말라야 도서관〉

교육의 힘, 나눔의 힘을 믿으세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로 한국의 세계 속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반세기만 돌이켜보면 한국은 아시아의 작고 힘없는 나라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외국의 원조를 통한 '교육'이 있었다. 우리가 받은 그 나눔을 이제 다시 나눔으로 보답할 차례다.

"우리나라가 잘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아주 힘들게 사셨어요. 제3세계 빈곤 국가들의 어렵고 힘든 모습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강원택(48)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손에는 존 우드가 지은 〈히말라야 도서관〉이란 책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선거 정치'의 전문가이자 한국 정치 상황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하고 있는 강 교수는 존 우드라는 사회적 기업가가 쓴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히말라야 도서관〉의 원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려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다(Leaving Microsoft to change the world)'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중국지사 이사로 일했던 존 우드는 '일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1998년에 떠난 네팔 여행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겪게 된다.

강원택 교수는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를 통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었듯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연히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책상도 없이 공부를 하고, 더구나 도서관은 책 한 권 없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등산객이 버리고 간 몇 권의 책들은 캐비닛에 자물쇠로 잠가 보관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직하고 자선단체 '룸투리드(Room to read)'를 설립했다. 그 후 네팔을 비롯해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 등에 학교와 도서관을 짓고 1백50만 권의 책을 기증하는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3세계 빈곤 퇴치 '교육 나눔'으로 도와야

강 교수는 존 우드의 자선활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나눔을 통한 '교육의 힘'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한때 네팔이나 다른 제3세계 국가들처럼 빈곤한 상태에 있었지만 해외 원조를 통해 교육 서비스 기반이 강화돼 부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배움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의 기회는 교육시설이나 교과서, 책 등 교육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고선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나눔을 통해 그런 도움에 보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 교수는 이 책을 읽으며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나눔들은 거대한 형태의 기업 기부금이나 큰 자선사업들이 아닌 개개인의 깨달음에서 지속되고 전파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존 우드는 개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이 존 우드처럼 적극적인 자선활동을 할 순 없겠지만 그의 활동을 통해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이나 소액을 기부하면서 또 다른 존 우드가 될 때 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조말생은 왜 정승이 되지 못했나?

일러스트 · 이우정

조선 제1호 장원급제자 송개신(宋介臣)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최초의 장원급제 출신 정승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제2호 장원급제자 김익정(金益精)에게 돌아갔다.

태조 5년(1396년)에 장원급제한 김익정은 한성부윤(지금의 서울시장)을 지낸 아버지 김휴(金休)의 배경까지 거들어 장래가 촉망 받던 관리였다. 그런데 관직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음에도 김익정은 1436년(세종 18년) 세상을 떠날 때 형조참판에 불과했다.

젊어서는 요직을 두루 거치고 근검과 효행이 뛰어나다는 평까지 있었음에도 오늘날 차관급인 참판에 머물렀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너무 강직하거나 아니면 고지식한 경우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정치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력 또한 화를 부르는 게 벼슬살이의 어려움이었다. 제3호 장원급제자 전가식(田可植)이 전형적인 경우다. 정종 1년(1399년)에 장원급제한 전가식은 임금에게 간(諫)하는 사간원의 요직을 맡아 일찍부터 중앙정치에 관여했다. 그러나 민무구 형제들과 가까운 것이 화근이었다. 태종은 처남인 민씨 4형제를 제거하면서 그의 세력을 함께 뿌리 뽑았다. 전가식도 이때 서인(庶人)으로 전락하고 결국 세종 4년 역적(逆賊)으로 몰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태종 오른팔 조말생의 정승 '탈락기'

제4호 장원급제자 조말생(趙末生 · 1370~1447)은 태종이 처음부터 뽑은 문과 급제자인 데다 태종의 무한 총애를 받으며 요직으로만 관직생활을 했고 77세까지 살았다는 점에서 정승이 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미스터리다.

태종 재위 당시 조말생의 고속승진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그에 앞서 먼저 조말생의 형제들을 살펴봐야 한다. 조말생의 형 조계생(趙啓生 · ?~1438)은 고려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해 태종 때까지만 해도 한직을 돌다가 세종의 총애를 받아 병조, 이조, 공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지만 결국 정승에 이르지는 못했다. 게다가 아들 조극중이 이조판서에까지 오르지만 계유정난 때 김종서와 황보인 쪽에 가담했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

반면 조말생은 태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관직생활 11년 만인 태종 11년(1411) 승정원 지신사(知申事 · 세종 때 도승지로 명칭이 바뀌고 오늘날의 청와대 비서실장에 해당)에 오른다. 그리고 태종 18년에는 이조참판을 거쳐 형조와 병조판서에까지 오른다. 이때 그의 나이 오십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당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긴 했지만 전권을 갖고 있던 상왕 태종은 모든 중대사를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 그리고 병조판서 조말생의 '트리오'와 상의했다.

세종은 일단 아버지의 신하들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조말생은 계속 병조판서를 맡았다. 그러나 세종 8년 조말생의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돼도 눈감아주던 세종도 조말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지신사에서 병조판서까지 10년 이상 정무(政務)를 잡은 사람으로 조말생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마는구나!"

세종이 조말생의 뇌물사건을 강하게 문제 삼은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조말생의 권력이 너무 커져 신하들조차 조말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조말생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세종은 대간(臺諫 ·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을 불러 이렇게 다그친다.

"어찌하여 지금 대간은 사실이 벌써 드러났는데도, 권력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즉시 다시 추궁하여 심문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조말생은 능력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 지존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셈이었다. 이것으로 조말생은 '조선 제1호 장원급제 출신 정승'의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했다. G

말을 읽고 글과 사귀고 책을 권하고…

젊은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며, 술보다는 책을 권할 것이다. 온 국민들이 책읽기를 생활화하고, 세상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책벌레의 나라를 만드는 내 꿈은 꼭 이뤄질 거라고 믿는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민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꾼다. 이 꿈은 결코 헛꿈이 아니다. 알다시피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건 목표를 세운 뒤에는 기어코 그 목표를 앞당겨 이뤄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앞다투어 책읽기를 생활화하고, 나아가서는 밥 먹듯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분명히 세운다면 그 뜻을 못 이룰 리 없다고 믿는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자연히 '책벌레'라는 별칭이 붙게 될지도 모른다. 얼마나 멋진가. 책벌레 한국인!

책벌레 한국인의 세상을 상상해보면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여기저기 도서관 앞에 인기 영화 상영관 앞보다 더 길게 줄이 늘어선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시험공부가 아니라 책을 읽으러 온 사람들이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지친 얼굴로 조는 것이 아니라 행여 짧은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책을 읽는다. 먼 길 가는 고속버스나 기차 안에서도 마찬가지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동아DB

'책벌레 한국인'의 꿈은 멀지 않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벤치조각상의 손에 들려 있는 책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어린이들.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민간도 정부도 한목소리

이렇게 되면 아마 젊은이들로 붐비는 대도시 중심가도 한산해질지 모른다. 그들은 피가 뜨겁기에 책을 읽으려는 열의도 남보다 더해, 길거리를 배회할 시간을 아껴서 책을 읽는 데 골몰할 것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친구도 사귀고 책을 통해 연애도 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틀림없이 술보다는 책을 권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버릇을 들이려 애를 태우고, 밤늦도록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다.

책벌레 한국인의 세상을 상상해보면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버릇을 들이려 애를 태우고, 밤늦도록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상상일지라도 이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꿈이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지난날의 궁핍했던 시절과 달리 엄청난 양의 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많은 책을 판매하는 서점과 도서관 수도 결코 적지 않다. 출판업계도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 페스티벌과 책의 날 기념행사 등을 끊임없이 벌여오고 있으니 우리의 독서 조건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주관 아래 전 국민 독서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9월 하순 열린 '2009 가을독서대축제'나 '이달의 읽을 만한 책'과 '우수교양도서' 선정 작업 등을 비롯해 전국 2백여 곳과 해외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 '책 함께 읽자' 캠페인 등이 바로 그런 일들의 갈래다.

우리는 열심히 책을 읽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바쁜 일정 중에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책을 읽고, 해외 순방 중에도 어김없이 책을 들고 간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의 미래>를 읽고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 때 참고했다는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까지도 책벌레이고, 국민의 독서 진흥을 위한 사명의식을 가진 정부가 있으니 우리 국민 모두가 책벌레가 되는 내 꿈은 틀림없이 앞당겨 이뤄질 것이다. G

글 · 양성우(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시인)

한국 경제, EU신노선 개통!

한 · EU FTA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더 큰 대한민국
2010 G20 코리아

한·EU FTA 신노선 개통!

27 **EU**(유럽연합)

이번 역은 EU역입니다.
EU 문이 열립니다!

한 · EU FTA로 EU 시장이 활짝 열립니다
수출길이 활짝 열리면 취업문도 활짝 열립니다

GDP 18조 4천억불('08년도 기준)의 세계 최대 시장 EU,
EU는 우리나라에게 제2위의 교역 상대국이며
('08년도 총교역규모 983억불)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08년도 투자규모 63억불)
한 · EU FTA로 우리경제가 더욱 좋아집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당신의 웃음이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7~10년 전매제한되며,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일부 떴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통장 불법거래 시
청약기회를 상실하거나 형사처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 지연 및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보금자리주택 - new

"보금자리주택 부정거래가 당신의 환한 웃음을 앗아갑니다"

보금자리주택 투기는 사회의 공적입니다